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차 경 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구윤희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

차 경 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구윤희

인 준 서

구윤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6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25.5%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자영업자 가계는 재무 특성의 편차가 크고 안정성 면에서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기업재무와 가계재무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영업자가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체와 가계의 재무상태가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무적 취약성, 집단내 편차, 기업재무와 가계재무의 혼재와 같은 특성은 곧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적 곤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원 유무, 매출액, 종사산업 등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를 구분하고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석, t 검정, 교차분석(chi-square), 일원분산분석(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0차(2017년) 개인 데이터와 가구 데이터를 병합하여 활용하였고, 자영업자 1,33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인 자영업자의 72%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고, 68%가 연간매출 9,000만 원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사업순수입 평균은 3,466만 원이었고,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비중 높아 전문성과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57세였고,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0대 이상이 50%를 차지하였다. 매출액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영업자의 연령이 높았고, 농림어업과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매출액이 낮은 집단은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유의

하게 낮다는 특성을 보였다. 또 매출액이 낮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산업(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을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연간매출액과 사업순수입에서 고용주의 경제적 성과와 큰 차이가 나는, 영세한 특성을 보였다. 자영자는 농림어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용주는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과 같이 자본이나 기반시설이 필요한 산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매출액이 낮은 집단이 유급 및 무급 종사자 수가 비교적 적고 농림어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았고, 매출액이 높은 집단은 제조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에서 비교적 많았고 연간매출액은 제조건설업과 도소매업이 여타 산업보다 규모가 컸다.

넷째,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자영자는 고용주와 비교하여 고령자, 저학력자이고, 배우자가 없고, 가구원 수가 적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매출액 수준이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이고, 배우자가 없고, 가구원 수가 적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였다. 농림어업의 고령자, 저학력자,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았고,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의 여성 비율이, 숙박음식점업의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가계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모든 측면에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가계보다 유의하게 영세한 수준을 보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은 고용주 가계가 유의하게 많았으나 이전소득은 자영자 가계가 더 많았고, 총지출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서 고용주 가계가 많았다. 총자산, 총부채 규모 역시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고용주 가계가 자영자 가계보다 많았다.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큰 집단이 소득, 지출액도 많았으

나, 이전소득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의 경우, 매출액 하 집단과 중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매출액 상 집단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소득과 지출 규모가 컸고, 농림어업은 가장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는 종사산업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제조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금융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여섯째, 자영업자 가게의 재무취약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게수지지표와 장기부채부담지표의 충족 여부, 사업자금 목적의 가게부채 보유 여부를 살펴 보았다. 가게수지지표 충족 여부는 연령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고, 40대는 미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다가 60대에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70대 이상에서 다시 미충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다. 자영자, 매출액이 낮은 집단에서 가게수지지표 충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농림어업의 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의 부채부담이 가게의 부채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사업자금 목적의 가게부채 보유 여부도 장기부채부담지표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자가, 농림어업과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등이 해당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일곱째, 자영업자 가게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게수지지표를 미충족하여 가지는 취약가능성은 가구원 수, 수도권, 자영자, 연간매출액, 순자산이 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장기부채부담지표를 미충족하여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은 대출, 수도권, 자영자, 순자산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 목적의 가게부채를 보유하여 가게가 취약할 가능성의 영향요인은 자영자, 연간매출액, 제조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순자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가게와 기업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것에 착

안하여, 가게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에 사업체 특성을 활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취약성 여부 결정요인 지표 세 가지와 관련하여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보완된다면 취약가게 집단을 특성별로 세분화할 수 있고 각 집단별로 가장 적절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영업자 가게의 재무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1. 자영업자의 정의 및 현황	6
1.1 자영업과 자영업자의 정의	6
1.2 자영업자와 사업체 현황	9
2. 자영업 선택과 관련 요인	16
3.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	23
4.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29
4.1 가계 재무비율 분석	29
4.2 취약 가계의 특성	30
III. 연구방법	34
1. 연구문제	34
2. 분석자료 및 표본	35
3. 측정도구의 구성	36
4. 분석방법	41
IV. 연구결과	42
1.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	42
2.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	44

2.1 자영업자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44
2.2 고용원 유무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47
2.3 매출액 수준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49
2.4 종사산업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49
3.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52
3.1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52
3.2 매출액 수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53
3.3 종사산업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54
4.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 비교	56
4.1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비교...	56
4.2 매출액 수준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비교...	58
4.3 종사산업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비교	62
5.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분석	65
5.1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	65
5.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 비교..	67
5.3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 비교	71
5.4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충족 여부별 재무구조 비교	75
6.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8
V. 결론 및 제언	85
1. 결론 및 논의	85
2. 제언	89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 제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는 약 564만 명으로 취업자 중 21%를 차지한다(통계청, 2018). 2007년 전체 자영업자 수가 605만 명,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7%였던 것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self-employment) 비중은 25%로 OECD 가입국 중 5위로 조사되었다(OECD, 2018).

이처럼 자영업자는 국내 경제시장,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이고 5년 생존율은 28.5%로 크게 하락하였다(통계청, 2018). 국세통계에서 2017년 총 사업자 수는 722만 명(연도 중 폐업자 미포함), 폐업자 수가 90만 명으로 조사되어 폐업률이 약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정호(2012) 또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자영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이 10.4%임을 밝히며, 자영업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지적한 바 있다. 통계 조사, 처리 및 가공 방법에 따라 수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자영업자가 불안정한 취업자임은 자명하다.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생계형, 짧은 준비기간, 낮은 전문성과 수익성을 가진 경우이기 때문에 대형업체와의 시장 경쟁,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자영업자는 해당 집단 내에서도 경제적, 재무적 특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

나 일관성 있는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자영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사업장 보유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매출 규모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는 데에 기인한다. 자영업자는 특히 고용원 유무에 따라 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형태가 상이하다. 박정수(2018)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며 소득 측면에서의 대비로 인해 지출성향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 측면도 마찬가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보다 약 2배가량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상 기업채무와 가계채무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은 가계의 부채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업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관련 자산과 가계의 자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나 사업수지와 가계수지가 연쇄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가계 채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9)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창업자의 평균 창업비용은 1억 1천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58.3%가 본인부담금이었으며 외부조달 41.7%의 대부분은 용자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6월 기준 자영업자로 식별된 차주들의 대출 잔액으로 추산된 자영업자 대출 590조 원의 84%인 494조원이 사업목적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는 대출로 조사된 바 있었다(한국은행, 2018).

자영업자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주체이다. 자영업자는 기업과 가계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업을 경영한다는 점에서 분명 기업체, 사업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자본의 출자와 운용, 사업 운영 형태, 종업원의 수와 구성 등을 미루어 볼 때

가계의 영역과도 가깝다. 이처럼 자영업자는 가계와 기업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특성의 파악이 중요하다.

최근 자영업자를 특수성을 가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계를 재정립하며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특히 정부는 2018.12.21자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자영업자에 대해 가졌던 보호와 육성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과 혁신,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영업자가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업체와 가계의 재무상태가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재무적 취약성, 집단 내 편차, 기업재무와 가계재무의 혼재가 가계의 재무적 곤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시경제,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취업형태로서의 자영업을 분석하거나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고, 자영업자의 특수성에 집중하거나 자영업자 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라 가계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며,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영업자 가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자영업자를 고용원 유무, 매출액, 종사산업 등 사업체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자영업자 가계의 특성을 파악,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적 취약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계, 사업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원 유무, 매출액 수준, 종사산업에 따라 사업체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사업체 특성(고용원 유무, 매출액 수준, 종사산업)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다. 셋째, 사업체 특성(고용원 유무, 매출액 수준, 종사산업)에 따라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재무구조를 비교한다. 넷째, 가계수지표 충족,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를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를 비교한다. 다섯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진단하며,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건전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의 편입,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 최저임금 인상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가계재무 측면에서 자영업자 가계의 현황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성질이 매우 이질적임에도 ‘자영업’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명명되는 자영업자 가계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가계가 직면한 곤란, 어려움 등을 보다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영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자영업자의 정의 및 현황

1.1 자영업과 자영업자의 정의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사업 활동으로 정의한다(통계청, 2016). 즉 자영업은 법인,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국한되는 개념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의 개념보다는 종사상의 지위나 취업자의 신분에 가까운 개념으로 정의하며, 법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비임금 근로자로서,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된다(통계청, 2019).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장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은 일반적 의미로 대기업과 대립되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 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법률적으로 보호와 육성 대상으로 규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다. 기업체의 범위가 업종별 규모 기준(매출액 등)과 업종과 무관한 상한기준인 자산총액 5천억 원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된다. 다만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상황과 정책 목적 등에 따

라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구분, 판단하며 중소기업 중에서 산업분류별 규모기준, 매출상한¹⁾을 충족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자영업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가장 많이 혼용되는 소상공인이 위와 같이 규모에 따르는 것이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해당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임으로 판단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 즉 소상공인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과 같이 기업체의 규모로 구분 지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집계한 소상공인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 374만 개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319만 개로 8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종사자 수 1,729만 명 중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37만 명으로 36.8%의 비중을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그 유사 개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용이한 자영업자로 개념을 통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거나 혹은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가진 소상공인의 개념을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용어와 개념의 정립 요구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자영업(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유사 개념이 혼용되고(<표 1>, <그림 1>) 대상의 정의, 통계집계방식 등이 달라 정책체계에 혼선이 있

1) 업종에 따라 10억, 30억, 50억, 80억, 120억으로 구분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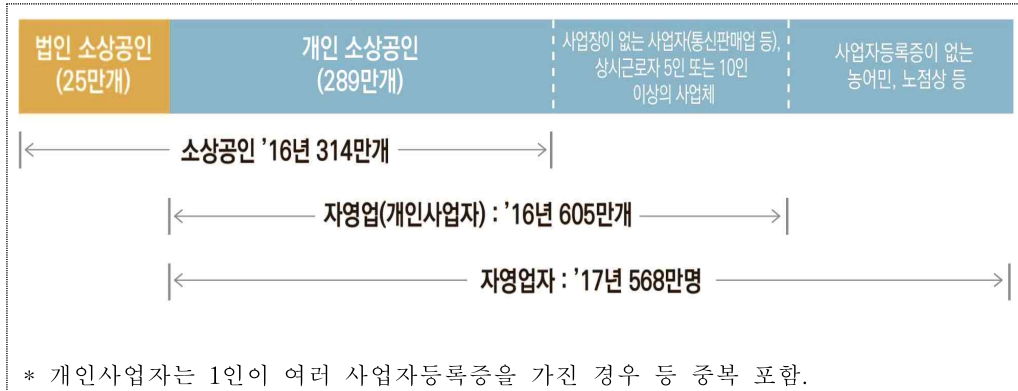
으며, 이 3자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영역이 부재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입안, 관련 개념정립 및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과 보호 및 육성의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표 1>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개념 비교

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정의	○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	○ 사업자등록자 중 개인사업자
현황	○ 자영업자 '17년 568만 명	○ 사업체 '16년 314만 개	○ 사업자 '16년 605만 명
법적근거	○ 없음	○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 부가가치세법
통계산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16)
특징	○ 사업자등록증 보유(법인 제외) 또는 무등록사업자 ○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	○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 (개인+법인) ○ 상시근로자(5~10인) 및 매출(10~120억) 상한	○ 사업자등록증 보유 (법인제외) ○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
차이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포함	○ 법인사업자 포함	○ 근로자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포함

출처 : 중소기업부(2018),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그림 1> 소상공인, 자영업, 자영업자 개념 비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18),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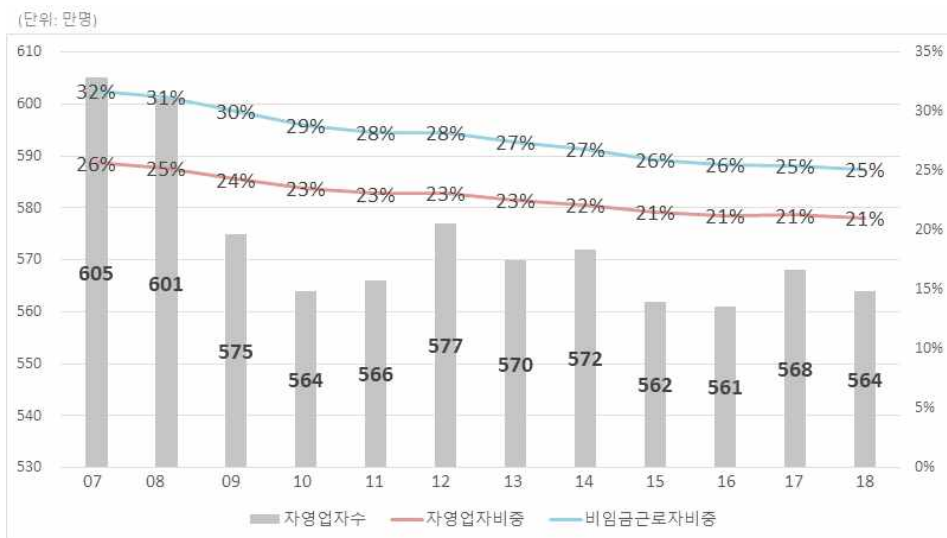
전술한대로 ‘자영업자’를 설명하는 정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명시 및 활용하는 것과 같이 ‘독립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를 합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용어의 혼용, 혼재에 따라 통계 자료해석의 상이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의 명확한 정립은 필요하겠으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의 운영과 가게의 운영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명하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에 국한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라는 자영업자의 정의에서 야기되는 가게 재무적 측면 또한 대상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자영업자’로 하였으나, 관련 통계자료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혼용,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통계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1.2 자영업자와 사업체 현황

1.2.1 자영업자 비중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한 자영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약 564만 명이고,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이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다(통계청, 2019).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제 현황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서 발표하는 자영업자(self-employment) 현황을 보면, 2018년도 기준 가입국 중 5위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9). 단, OECD에서 정의하는 self-employment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림 2> 국내 자영업자 규모 및 비중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1.2.2 자영업자 현황

자영업자 현황과 사업체 현황은 통계청(2018)에서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9)에서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자영업자에 대한 일관된 정의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DB 구축이 미비하여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사업체와 소상공인 관련 통계자료를 함께 참고하였다.

전국사업체 조사의 경우 농림어업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간이 판매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로, 노동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한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표본으로 모수를 추정한 자료이다.

2018년 8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 686만 명은, 24%인 165만 명이 고용주, 59%인 403만 명이 자영자, 17%인 118만 명이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교육수준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졸이 282만 명으로 41%, 대졸 이상이 233만 명으로 34%, 중졸 이하가 171만 명으로 25%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고용주는 53%가 대졸로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자영자는 대졸 이상 30%, 고졸 42%, 중졸 이하 28%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통계청, 2018 부가조사). 또 대표자 연령대별로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62만 개로 14%, 4~50대가 253만 개로 63%, 60대 이상이 87만 개로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대표자의 비중이 큰 산업은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각각 61%, 56%의 비중을 차지해 과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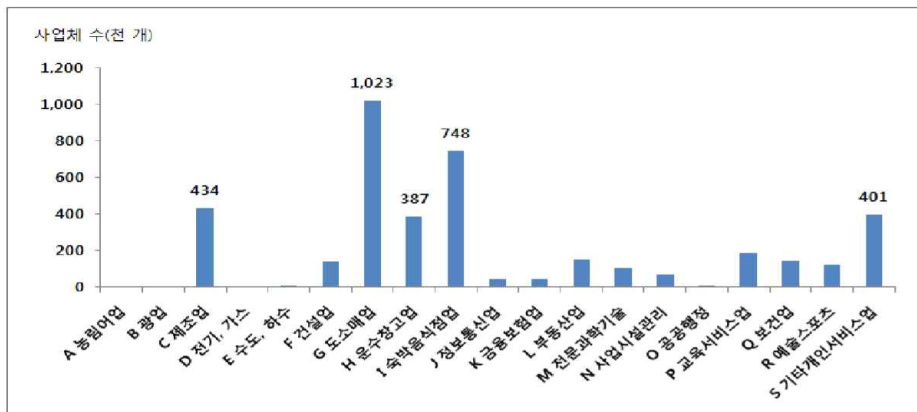
상이 여성 대표자인 산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사업체조사).

1.2.3 자영업자 사업체 현황

1.2.3.1 사업체 규모와 구조

2017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수는 402만 개, 종사자 수는 2,163만 명으로 2007년 76만 개, 568만 명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에서 사업체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광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소매업 분야에서 전체의 2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사업체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숙박음식점업이 18.6%, 제조업 10.8% 등이 뒤를 이었다(통계청, 2018 사업체조사).

<그림 3> 산업별 사업체 수



출처 : 통계청,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전체 사업체에서 개인사업체는 320만 개로 80%, 법인 사업체가 69만 개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8 사업체조사), 소상공인 사업체는 개인 사업체가 93%, 법인이 7%로 구성되어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사업체 소재지별로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47%인 190만 개가 존재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 29만 개, 경남지역 27만 개 등이 뒤를 잇는다. 종사자 수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5인 미만의 사업체가 323만 개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5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체가 77만 개로 19%,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가 1.5만 개로 0.4%, 300인 이상의 사업체가 4천 개로 0.1%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5인 미만의 사업체에 585만 명으로 2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통계청, 2018 사업체조사).

2018년 8월 기준으로 고용주의 사업 운영기간은 평균 10년 5개월, 자영자는 14년 9개월로 나타났다. 10년, 20년 이상의 장기 운영 사업체가 고용주(42%), 자영자(51%)로 다수 차지하지만, 5년 미만 운영 사업체도 고용주(37%), 자영자(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년 미만 운영 사업체도 7% 가량 존재하고 있다. 이를 산업별 평균 운영기간으로 세분화해 보면, 가장 긴 기간을 영위하는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28년 7개월이며, 이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이 약 12~13년, 숙박음식점업은 7년 10개월로 운영기간이 가장 짧은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주된 근로 장소를 살펴보면 고용주는 대부분(91%)이 자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자영자는 51%만이 사업장에서, 이외에는 야외 작업현장 23%, 운송수단 등 15%, 자가 등 8.3%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통계청, 2018 부가조사).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보면, 고용주는 95.1%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자영자는 63.4%만이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임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산업별 비율로 세분화해보면 농림어업의 대다수인 93.1%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숙박음식점업의 94.5%가, 개인·공공서비스업의

76.8%가 사업자등록이 있고, 여타 산업군은 80% 후반의 비율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권자는 자영업자의 76%이고 미가입자는 24%로 나타났고, 이중 고용주는 86%가, 자영자는 72%가 가입 및 수급권자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가입 및 수급자는 제조업(82%), 전기·운수·통신·금융업(79%), 건설업(79%) 순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은 68%로 산업군 중 가장 낮은 가입 및 수급 비중을 보였다.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56%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였으며, 산업별 가입 비중이 높은 순서로 제조업 75%, 전기·운수·통신·금융업 65%, 개인·공공서비스업 57%였고, 숙박음식점업 49%, 농림어업 11%은 비교적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통계청, 2018 부가조사).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장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률은 22%, 산재보험은 22%, 국민연금 가입률은 24%, 건강보험 가입률은 24%로 나타났고, 전문과학기술 업종의 가입률이 55% 전후로 가장 높은 반면, 운수업은 가입률이 5% 전후로 가장 낮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1.2.3.2 사업체 진입과 퇴출 - 창·폐업 관련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창업 동기를 조사한 결과, 71%가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 16%가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였다. 사업 준비기간은 1년 미만이 대다수인 87%, 특히 3개월 미만이 50%에 달해 사업 준비를 위한 기간은 짧게 나타났다(통계청, 2018 부가조사).

소상공인 사업체의 창업이력과 관련하여, 현 사업체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32%이고 산업별로 재창업 비중이 높은 사업은 41%로 숙박

음식점업이 가장 높았고 전문과학기술이 19%로 가장 낮았다. 창업동기로는 68%의 응답자가 창업 외의 선택지가 없어서, 즉 생계형으로 사업을 선택한다고 하였고, 성공 기회로 창업동기를 꼽은 응답자는 25%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0.2개월이며 3개월 미만이 40%, 1개월 이하도 1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3개월 미만의 초단기간 준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등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폐업 경험과 관련해서는 재창업자의 74%가 폐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 운수업, 수리·개인서비스업 등이 77%로 높은 축에 속하고 건설업이 57%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하였다. 폐업의 원인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낮음, 동종업종의 과당경쟁, 새로운 사업아이템 보유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향후 성장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느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었고, 동종업종의 과당경쟁이 심하다고 느끼는 업종은 운수업과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임대업 등이 있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1.2.3.3 사업체 자금조달과 운용

창업자금 규모는 5천만 원 미만이 71%, 1억 원 이상이 13%로 조사되었고, 별도의 자본 필요 없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도 22% 존재하였다. 사업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함이 64%로 가장 많았고, 친지와 동업자, 타인 등 개인적으로 빌리는 경우도 13%로 적지 않았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는 경우는 26%로 나타났고 별도의 자본 필요 없음은 22%가 응답하였다(통계청, 2018 부가조사).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조달과 관련하여, 총 소요 비용은 평균 1억 1천만 원으로, 산업별로 제조업이

1억 7천만 원, 예술·스포츠·여가가 1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창업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 경로에서는 본인부담이 64%, 외부조달 비용 중에서는 은행으로부터의 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연간매출액 평균은 2억 4천만 원, 중앙값 7천만 원, 영업이익은 3천 2백만 원, 중앙값은 2천 4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만큼은 아니더라도 영업이익 또한 산업별로 차이가 났는데,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은 4천만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수리·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등은 2천만 원 전후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부채와 관련한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체의 44%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 부채액 평균은 1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4%, 숙박음식점이 53%, 건설업이 51%, 도소매업이 48%로 사업관련 부채를 보유한 사업체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운수업의 경우는 23%만이 사업관련 부채를 보유해 여타 산업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2. 자영업 선택과 관련 요인

자영업자와 관련한 연구는 노동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 크게 자영업의 선택(진입), 자영업의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택 연구는 가구나 개인의 특성, 세대 간 이전 등, 성과 연구는 자영업 소득, 생존에 주목해왔다(성지미, 2011). 이전의 연구는 자영업자와 거시경제와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미시적 시각으로 접근하더라도 자영업자의 가계에까지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선택요인과 관련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자영업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자영업자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자영업 선택과 관련된 연구는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전병유(2003), 최문경·이명진(2005), 성지미(2011), 주동현·손종철(2014), 박창귀(2016), 안정화(2017)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특성은 집단 내 이질성, 고령, 비자발성, 비전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창귀(2016)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술적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특성을 몇 가지로 도출하였는데 고령자, 소규모(자영업자), 높은 폐업률,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과 큰 부채규모, 집단 내 소득격차, 임시일용근로자나 무직·가사로의 징검다리적 일자리 성격 등으로 자영업자를 특징지었으며, 이는 자영업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설명하였다. 또한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 고령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졸인 경우 자영업 근로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하여 자영업자가 고령층, 저소득층이라는 성격과 맞물리면서 이들이 핵심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은 취업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영업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소득, 근로조건, 독립성 등의 효용이 임금근로를 통해 얻는 효용보다 클 경우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이다(Pham et al., 2018). 그러나 김우영(2000)은 자영업 연구를 함에 있어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통계 결과의 역선택(자영업자로 선택된 사람의 평균이 무작위로 추출된 자영업자 평균보다 소득이 낮게 나

타난 현상으로, 취업형태 선택이 소득을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자영업자가 이질적인 두 집단인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판단하였다. 이에 두 집단을 구분하여 통계적 추정을 함이 타당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영업의 선택과 관련하여, 고용주를 선택하는 사람의 경우 고학력, 도시거주, 전문직일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직업력 측면에서는 첫 번째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산업 측면에서는 농수산업, 음식숙박업 등의 종사자가 자영자가 될 확률이 높음을 설명하였다.

홍성희(2005) 또한 자영업자는 그 집단의 성질이 이질적이고 여러 지표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집단으로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객관적, 주관적 성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자영업 선택과 관련하여 유인가설과 구축가설 두 가지 가설을 연구에 적용하기도 하였다(Pham et al., 2018). 유인가설(pulled hypothesis)은 자영업의 증가가 위험선호적인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서, 경기가 호황일 때 자영업을 통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흑역 실패하더라도 재취업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업가 효과나 번영가설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기업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창업한 기업인 기회기업(opportunity entrepreneurs)이라고도 한다(Solinge, 2014). 반면 구축가설(pushed hypothesis)은 자영업의 증가가 비자발적인 낙오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서, 경기가 불황일 때 임금근로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영업 영역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이를 난민효과나 실업구축가설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기업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기업인 필요기업(necessity entrepreneurs)이라고도 한다(Solinge, 2014; 안정화, 2017).

김재호·조준모(2000)는 자영업자가 집단 내 저능력자군과 고능력자군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연구자에 따르면 기업의 선발기준에 미달하는 생산적 능력을 가진 노동자의 경우 임금근로 부문으로 진입할 기회가 상실되고 비자발적인 자영업자가 된다. 반대로 선발기준은 충족하지만 시장경쟁하, 기업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균형임금(근로자평균 생산능력에 근거해 산정한)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고능력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 부문에 편입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다. 자영업을 최초 취업형태로 선택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보면 높은 연령, 기혼, 남성, 낮은 학력수준, 부친의 직종이 자영업임 등이 나타났다. 신규취업자의 경우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적 능력의 대리변수임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교육 한계 수익률의 차이를 미루어보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 자영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전직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를 선택할 경우의 근로자 특성은 취업기간과는 정, 교육수준과는 부의 관계를 가졌다.

성지미(2011)는 국내 자영업 비중이 여타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국내 노동시장이 조기퇴직이 빈번하면서도 은퇴 이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재취업시장이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즉 많은 경우 국내의 자영업은 실업이나 미취업의 대안적 고용형태이며, 빈곤 탈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영업 선택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시장에서 낙오된 인적자본이라는 시각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최문경·이명진(2005)은 자영업에의 진입이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시각과 소극적인 결과라는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 비중의 증가는 탈산업사회의 일면이며, 새로운 경제 질서로의 이동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상반된 시각은 자영업을 실업의 대안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의 축소가 실업을 야기하며 실업은 곧 자영업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안정화(2017)는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경기변동(실업률)

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업률의 증감은 자영자의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구축가설을 지지한 반면, 고용주의 경우 실업률이 고용주 증감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진 못하였다. 다만 고용주의 증감은 실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실업이 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두 집단의 증감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고용주와 자영자는 서로 취업형태가 달라 이윤 획득에 있어서 타인을 고용하느냐 스스로를 고용하느냐에 차이가 있고, 거시적 경기변동에 따른 의사결정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Solinge(2014)은 은퇴자가 은퇴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이 자영업 선택 모델은 완전은퇴자와 가교은퇴자를 구분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자영업과 임금근로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 은퇴 이후 자영업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을 보유(부와 교육수준)하고,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졌으며(높은 자기효능감 점수), 그들의 은퇴를 비자발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자가 됨은 은퇴 이후의 경로를 선택함에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기회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전병유(2003)는 자영업자의 인적자본, 기업가적 자본, 재무적 자본 즉 교육수준, 자본조달 제약, 부모의 자영업 여부, 기대소득 등 미시적 요인과 경기변동 등 거시적 요인이 자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모형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모형 1은 개인적 특성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높은 연령, 대출, 남성의 경우 직업 경력이 자영업 선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소득 유무, 부동산 소유 여부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드러

났다. 다만 고용주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부동산 자산 소유 여부가 자영업 선택을 높이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자본 조달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영업 소재지의 경우는 자영업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모형 2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함수 추정과 관련되고 모형 3은 앞선 모형을 통해 얻은, 취업형태에 따른 소득기회 차이가 자영업선택 모형에 포함된 것이다. 위 모형을 통해 연구자는 취업유형 선택에 있어 자영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집단과 비교열위를 가진 집단 간 이분산성이 존재함과, 자영업자 집단은 집단 내부적으로도 이질적이라는 성격을 가짐, 이에 따른 자영업 선택이 이루어짐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을 자본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재정적 제약이 있는 경우 자영업에 진입하거나 잔류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재정적 제약의 완화는 자영업에의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Pham et al., 2018).

Lee et al.(2015)는 12개월 내 신제품을 출시한 혁신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영국의 혁신기업(고용원 있는 고용주만을 대상) 10,708개를 분석에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가지는 금융접근의 어려움을 구조적 측면과 경기변동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중소기업이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에 대하여, 혁신활동에 따른 회수(return)가 불확실하여 이러한 기업은 금융기관에게 리스크가 큰 고객이라는 점, 정보비대칭은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혁신적 투자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생성된 무형자산은 기업 외부적으로는 유용한 담보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 기업의 금융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매출 감소와 짧은 업력 등을 확인하였다(Neil Lee et al., 2015).

Bates(1995)는 금융자본 제약과 같은 장벽이 자영업 진입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장벽의 성격은 산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자영업 결정요인에 비교적 중요도가 낮았던 교육수준과 업력을 중요한 변수로써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학력수준은 전문서비스(skilled service)직군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건설업의 경우 반대 효과가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고 남성일 가능성이 높았다. 자본집약적이고 규모가 큰 제조업과 도매업 군으로의 진입에는 1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과 남성, 긴 업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설명력이 없는 변수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자영업자 가계의 자산이 높은 자영업 소득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가계의 자산이 사업 자본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잠재적 차입능력과의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볼 때, 여성은 그들의 자영업 진입과 관련하여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 경험이 중요하고 남성은 비교적 자산이 중요한 변수가 되며, 공통적으로 자영업 진입에의 장벽이 있는 집단은 인적 자본도 금융 자본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주동현·손종철(2014)은 자영업 비중의 특징을 차입제약으로 설명하였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자영업자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차입제약 하에 있을 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신용제약이 자영업이라는 취업유형의 선택보다는 사업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신용제약의 강화 혹은 완화는 자영업자의 최적자본량의 투입가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기업가정신에 의한 자발적 창업을 증진시켜 자영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입제약 완화와 이를 위한 정보비대칭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위험에 대한 태도로 자영업 선택을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Brown et

al.(2011)은 위험태도의 차이가 자영업 (진입) 확률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였다. 개인적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할 의사는 자영업과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사상지위와 현재 위험태도는 상호의존적이었고 과거의 위험태도도 현재 고용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태도가 미래의 자영업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

자영업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금재호·조준모(2000), 정영금(2001), 성지미·안주엽(2003), 홍성희(2005), 반정호(2012), 지은정(2012), 임은의·임유진(2013), 박정수(2018)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특성을 영세성, 빈곤가능성, 낮은 경쟁력, 집단 내 성과 편차, 기업재무와 가계재무의 혼재, 부채부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Lofstrom(2013)은 연간소득으로 저숙련 자영업과 저숙련 임금근로자의 성공(경제적 성과) 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저숙련자의 소득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고, 동시에 최상위 소득은 자영업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 내부적으로도 소득수준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하였다. 자영업이 저숙련 노동자에 대해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익, 소득과 연관된다는 것과, 이것은 성별과 국적을 고려하여도 유지되는 관계성임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측면에서의 불리함은 저학력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43% 수준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정호(2012)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계를 임금근로자 가계와 비교하

여, 이들 가게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소득격차와 빈곤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영자 가게와 임금근로자 가게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영자 가게의 저숙련 문제, 연령이나 학력수준 등의 특성, 자영업 시장의 경쟁과열과 비자발적 시장 진입(pushed) 등이 빈곤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은정(2012)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게의 근로소득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고 변화정도를 관찰하였다. 전체 근로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지니계수로 측정한 결과 전체 근로자 평균 0.419, 임금근로자 0.398, 자영업자 평균 0.486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비교적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또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대수편차평균으로도 측정하여 2005년과 2008년을 비교한 결과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더 높아졌으며,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에도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과 사업규모를 지적하였고 추가적으로 산업이 불평등 정도에 갖는 기여도 또한 언급하였다.

임은의·임유진(2013)은 자영업 집단 소득불평등이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자영업자 집단의 사업순수입이 1분위와 10분위 간 133배 차이가 나타났고,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모두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영업 내 소득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자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두 집단의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집단의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집단에서는 경상소득의 소득격차보다 가처분소득의 소득격차가 심하고,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두 집단 간에 사회보장 보험료와 조세의 형평성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순소득의 중앙값 2,360만 원을 기준으

로 영세자영업자와 일반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자영업자 집단 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 지방시군구, 낮은 교육수준, 적은 자산(금융, 부동산) 및 부채, 도소매 및 서비스 운수업 등이 영세자영업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고령과 작은 사업규모는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금재호·조준모(2000)는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 결정 함수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적 능력을 갖춘 근로자만이 자영업을 통해 순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취업형태 선택에 따른 소득수준을 보면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매출액과 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고, 임금근로자와 공통적으로는 교육연수, 근속기간, 성별(남성)이 높은 소득 수준과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매출액과 고용원 여부는 신규 취업자의 경우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사업규모와 투자규모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을 선택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인적자본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성지미·안주엽(2003)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개인적 특성과 사업체의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성과를 시간당 월평균 자영업소득과 종업원 1인당 연간매출액을 통해 도출하고 그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기업경영 성과와 유사한 지표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월평균 자영업소득, 연간매출액 외에도 창업 시 자본금, 자본 조달방식, 종업원 수 등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자영업소득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개인 특성과 사업체 관련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에 추가적으로 업종 가변수를 포함하여 업종별 특성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처리업(+)과 부동산 임대사업(-)만이 영향을 주는 업종임이 나타났다. 또 성별과 무관하게 높은 교육수준이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연령의 경우 여성은 20대

를 제외하고 연령이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수도권 소재 자영업일수록 높은 자영업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내포하였고 자영업 지속기간과 자영업 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연간매출액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는 앞선 회귀모형과 동일하다. 분석 결과 미혼, 고용주, 수도권과 강원지역, 긴 사업기간이 자영업자의 연간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며, 교육수준과 연령 등은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업종의 경우는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오락문화·운동관련업,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액 수준이 제조업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주요 결과로 연구자는 자영업자 개인의 특성이 자영업소득에, 사업체 특성이 매출액에 영향력을 가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홍성희(2005)는 자영업자의 성과를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 성과는 자영업의 객관적 지표로서, 자영업 소득의 로그값을 활용하고 비경제적 성과는 주관적 지표로서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자영업자의 개인, 가계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으며 소규모 자영업자 3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영업 소득에의 영향요인은 성별과 연령, 창업자본금, 사업기간, 고용원 유무로 나타났다. 남성이 더 높은 소득값을 가졌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 커브형태를 가졌다. 또 창업자본금이 많을수록, 사업기간이 길수록, 고용원이 있는 경우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는 자영업자의 사업 규모와도 직결되며, 사업 규모가 매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수는 직업만족도라는 주관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정영금(2001)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15개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인

력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실태진단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가족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가족기업이 가계재무와 기업재무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두드러졌는데 가계의 자산과 사업체의 자산이 혼용되고, 가계의 지출을 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가계재무와 기업재무를 분리하여 운용하더라도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가계자산과 기업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서 통합하여 인지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가계와 기업 중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자원을 분배해 활용할 수는 있으나 가계와 기업 간 자원혼용을 지양하고 재무관리 체계를 분리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박정수(2018)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약 2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소득의 차이로 인해 지출성향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자산, 부채 측면을 비교했을 때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보다 약 2배가량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2014)이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 가계의 부채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 가계는 주로 사업자금과 생활비마련을 위해 부채를 증가시키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계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2017)은 자영업자 가구가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금융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건전성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LTV, DTI, DSR, DTA 등 다양한 건전성 비율에서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체경험 가구 비중도 자영업 가계가 상용근로자 가계보다 높고, 보유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부채 전체를 상환하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문제가 영세 자영업자 가계에서 특히 심각함을 보고하였다.

이준협(2013)은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³⁾의 채무상환비율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직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자영업자 저소득가계의 채무상환비율(월별 원리금상환액/월별 가처분소득)은 251.4%로 상용직 47.7%, 임시일용직 66.2%, 무직 66.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금융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과 사업 자산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기가 여타 저소득층 가계보다 비교적 용이했을 가능성을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자영업자 가계는 가계이면서 사업체라는 성격을 가지는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활용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일례로 서정호(2018)는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양측이 혼합된 대출을 구분하고, 자영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대출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석기(2016)는 우리나라 노동소득과 가계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통계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자영업자 소득은 노동-자본소득 측면과 가계-법인소득 측면에서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통계를 처리할 때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한국은행의 통계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포함하는 OECD 방식의 통계는 노동소득 분배율 결과에 큰 차이가 있고, 자영업자 소득을 가계소득이 아닌 기업소득에 포함시키는 한국은행의 통계와 자영업자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포함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저축률은 큰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3)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 제곱근 값으로 나눈 값이 중위소득의 50%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4.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4.1 가계 재무비율 분석

가계의 재무비율은 재무비율이 기업의 재무상태 평가에 사용되던 것에 착안, 가계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한 것으로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재무요소를 활용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객관적 지표나 합의된 준거를 제공한다(최현자 외, 2003). 두 가지 이상의 재무요소로 구성된 재무비율을 활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는 한 가지 재무요소로 구성된 단순지표보다 가계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더욱 효과적이다(배미경, 2001; 김민정 외, 2007). 재무비율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초기 미국의 재무비율 연구를 국내에 적용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평가지표 추출과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최현자 외, 2003), 부채부담 등 특정 재무비율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연구(채은석 외, 2000), 여러 측면에서 재무비율 준거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연구(양세정 외, 2010; 양세정 외, 2013), 재무비율을 적용하여 가계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주소현 외, 2016)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오고 있다.

최현자·이희숙(2003)은 가계의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여러 측면에서 도출하고 각 재무비율별 만족도 비교를 통해 준거기준을 마련하였다. 크게 안정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는데, 가계수지지표를 월평균생활비를 월평균가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하였으며 준거기준을 0.9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부채부담지표의 경우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0.8, 금융자산인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채은석·성영애(2000)는 객관적 부채부담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 비율이 0.2, 0.3, 1.0에서 주관적 부채부담이 유

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부채잔액은 절대적 규모로서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주관적 부채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양세정·정지영(2010)은 재무설계전문가를 의견을 수렴하여 재무지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가계수지지표의 경우 월평균생활비를 월평균가계소득을 나눈 값이 0.6 이하, 부채부담지표의 경우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0.5 미만, 금융자산의 경우는 4~5배 수준으로 제안하였다. 양세정 외(2013)은 재무비율을 장·단기적 관점 및 건전성·성장성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가계수지지표는 총지출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0.7 이하로, 부채부담지표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0.4 이하로 제안하였다.

<표 2> 재무비율과 준거기준

평가 지표	재무비율		준거기준
소득지출 측면	가계수지지표	총지출/총소득	0.7 이하
자산부채 측면	장기부채상환지표	총부채/총자산	0.4 이하
	중기부채상환지표	총부채/금융자산	4~5배
	단기부채부담지표	총부채상환액/총소득	0.3 이하

출처 :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2013), 양세정·정지영(2010)을 참고하여 구성.

4.2 취약 가계의 특성

배미경(2001)은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가계와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상태를 살펴보았다. 특정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가계수지지표에 해당하는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은 준거기준 1으로 하였고, 임금근로자 가계는 66%, 자영업자 가계는 59%가 준거기준을 만족하였다. 부채부담지표는 유동자산을 총부채로 나눈 값으로 준거기준을 0.1으로 하였고 임금근로자의 87%, 자영업자의 83%가 해당 재무비율

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동성비율, 자본축적비율 등 7가지 재무비율을 고려한 결과 임금근로자 가계에서 준거기준을 만족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한 가지 재무요인을 고려하는 단순지표로 비교했을 때 가계 재무상태가 양호해 보이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재무요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는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최효미(2005)는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소득분배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 최상위 10%에 포함된 비율도 높지만 최하위 10%에 포함된 비율도 더 높아 자영업자의 양극화 정도가 임금근로자보다 심각함을 설명하였다. 한편 최상위 10분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1.5배가량 높으나 최하위 10분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70%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함을 보였다. 또 연구자는 최상위 분위와 최하위 분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최상위 분위에 비교하여 최하위 분위 자영업자는 여성, 60세 이상, 고졸 이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지속 기간 60개월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소득 평균과 특성별 비중을 살펴본 것으로 이 자체로 자영업자의 취약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여성 자영업자, 고령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구별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지은정(2013)은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곤기준(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수준) 충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의 10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경우 농어업 종사자가 빈곤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150%, 20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 변수가 동일했는데, 저소득 자영업자, 저학력 자영업자

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령이라는 특성이 자영업자의 빈곤, 경제적 취약성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에 주목하였는데, 저학력이면서 고령자인 집단과 서비스업이면서 고령자인 집단이 취업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자영업자의 고령-저숙련, 고령-낮은 진입장벽 산업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주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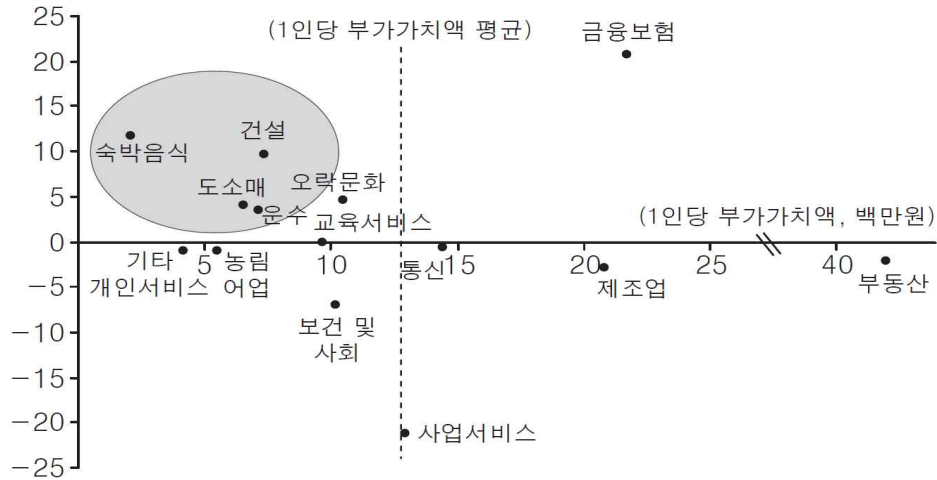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취약성은 현시점 자영업자가 당면한 문제일 뿐 아니라 미래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다. 주현 외(2010)의 발간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경우, 이후의 종사상지위 구성을 살펴보면 2003~2008년 평균, 무직 38%, 임시일용직 21%로 조사되어 소득수준의 하향, 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고용주의 26%, 자영업자의 40%가 공적연금 미가입, 납부예외,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임시일용근로자, 실업자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상용근로(12%)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영금(2001)은 면접조사 대상자인 자영업자가 장기적 사업 전략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기보다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낮은 숙련도와 적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기업으로서의 성장보다는 영세성을 띤 소규모 사업에 머무르게 됨도 지적하였다. 전문성이 결여된 자영업 진입과 경제활동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가계의 안정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현 외(2010)는 산업별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자영업자가 산업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특히 높게 나타난 산업은 운수업(국내 39%, OECD 12%), 도소매업(국내 37%, OECD 19%), 숙박음식점업(국내 32%, OECD 16.4%) 등이었다. 서용구·김숙경(2012)은 이러한 자료와 함께 산업별 월평균 사업순

수입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결과 모든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순이익이 낮은 경향은 있으나, 사업순수입 평균 149만 원보다 낮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운수통신업, 숙박음식점업, 소매업 등으로 나타났다. 즉 운수업, 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경제적 성과가 매우 미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취약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1인당 부가가치¹⁾별 산업과 자영업자 증가율
(자영업자수 증가율, %)



주 : 자영업자수 증가율은 2012년 1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부가가치액은 2012년 1분기 1인당 명목부가가치 창출액
 자료 : 통계청, LG경제연구원

출처 : 고가영·이근태(2012)에서 인용.

¹⁾ 1인당 부가가치=명목GDP/취업자 수.

고가영·이근태(2012)는 부가가치액과 자영업자 증가율으로 자영업자의 취약성을 지적하였다. 저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2012년 기준 증가세가 뚜렷했던 산업 부문으로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자영업 진입이 비교적 쉽거나 기반시설, 초기자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업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들 산업의 2012년 기준 실질생산액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수익성 또한 악화됨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원 유무, 매출액, 종사산업 등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진단하며,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건전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은 어떠한가.

1-1. 고용원 유무, 매출액, 순수입, 종사산업, 산재보험가입여부, 사업장보유여부, 사업자등록여부 등 사업체 특성은 어떠한가.

1-2. 고용원 유무, 매출액 수준, 종사산업에 따라 사업체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고용원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매출액 수준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3. 종사산업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1. 고용원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매출액 수준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3. 종사산업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가계수지표 충족, 장기부채 부담지표 충족,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는 어떠한가.

4-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4-2.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4-3.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충족 여부별로 재무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및 표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크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 데이터와 해당 가구에 소속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

상으로 한 개인 데이터, 그리고 3차년도부터 노동관련 미시적 시사점을 제공할 부가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횡단면 자료로서의 장점과 조사대상의 의사결정과 행동양식 변화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함께 가져 노동시장 분석과 이에 따른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을 뒷받침하는 통계 데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19).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제20차(2017년) 개인 데이터와 가구 데이터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개인 데이터에서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추출한 자영업자 1,909명 중 매출액이 3,000억 원인 이상치(outlier) 1명을 삭제하였고, 가구 데이터 변수인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응답이 없는 574명을 제외하였다. 즉 개인과 가구 데이터의 응답 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결측치를 처리하고,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계재무 관련 자료가 있는 총 1,334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1,334표본 중 94%인 1,257개 표본의 응답자가 가구주이고, 나머지 77명 중 75명이 가구주의 배우자로 나타나,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 특성을 응답하기에 적절한 조사대상임을 확인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3.1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은 고용원 유무, 매출액 및 순수입 규모, 종사산업, 사업장 보유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고용원 유무는 자영업자 본인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고용된 유급의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한 명 이상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로 구분하였다.

매출액은 현재 일자리의 연간 매출액을 묻는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농림어업의 경우 판매하여 얻은 수입(비용 포함)을 조사하였다. 순수입 규모는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통해 얻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여 산출하였다. 총비용에는 사업비용, 세금, 제반활동비(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가 포함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서 조사한 월평균 순수입을 연간 단위로 환산하였으며, 별도로 조사한 적자(손해)액 문항을 병합하여 활용하였다.⁴⁾

중사산업 분류는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중·소분류 단위의 산업(제9차 표준산업분류)을 재구성하였다. 농림어업은 농업, 임업, 어업을 포함하고 제조건설업은 제조업과 건설업 및 관련업을, 도소매업은 도매, 상품중개업, 소매업 등을 포함하였다. 숙박음식점의 경우 숙박업과 음식점업, 주점업을 포함하고, 운송창고부동산임대는 운송업과 보관·창고업, 부동산업, 시설관리업, 부동산제의 임대업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서비스업은 전문서비스업, 교육, 보건, 금융 및 보험업, 출판 및 방송 관련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체 특성으로 사업장 보유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를 활용하였다. 사업장 보유 여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으로 파악하였으며, 건물이나 땅 등 물리적 형태가 있는 사업장을 가진 경우와, 자택, 운송수단, 야외 작업현장 등 물리적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다만 사업 특성,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기도 한다. 가구 내 고용활동일 경우, 농업·임업 및 수렵업 중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등이다.⁵⁾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사

4) 선행연구에서 자영업자의 적자를 음수가 아닌 0의 소득으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표본을 삭제하기도 하는데(전병유, 2003; 임은의·임유진, 2013 등),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가 사업적자를 기록한 경우, 순수입을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환,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 표본 28개가 사업적자를 낸 자영업자로 조사되었다.

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⁶⁾

위와 같은 사업체 특성 중 사업체의 규모와 성격을 대표하는 고용원 유무, 매출액 수준, 종사산업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계 재무구조 특성을 비교하였다.

3.2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거주지역 등을 파악하였다. 연령은 평균 연령을 조사하고,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다섯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파악하였다.

3.3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 특성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 특성은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규모를 조사하였다. 각 항목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의 조사항목을 재구성하였다. 각 세부항목별 구성과 내용은 <표 3>와 <표 4>에 제시하였다.

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join/targ.jsp>>

6) <<https://www.taxnet.co.kr/nMain.asp>>

<표 3> 소득, 지출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총소득 ¹⁾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 직장 또는 일자리에 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
	금융소득		금융, 비금융기관 이자소득, 직접투자차익 등
	부동산소득		임대료, 매매차익, 도지, 권리금 등
	이전소득		사회보험금 수혜금, 사적 이전소득 등
	기타소득		보험금, 복권, 퇴직금, 증여·상속, 조의금 등
총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식비, 외식비
		주거비	주거비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의료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대중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통신비
		기타지출	교양오락비, 피복비, 내구재, 생필품구입비, 기타
	비소비지출		경조사비, 현금 및 각종기부금,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료, 가족 간 용돈 등

¹⁾ 모든 소득항목은 세후 소득액을 조사함.

<표 4> 자산, 부채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설명
총자산	금융자산	저축액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	
			기타금융자산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 간 빌려준 돈, 기타
		전월세보증금		거주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지불한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의 시가
		거주주택 외 부동산		거주주택 외 부동산의 시가
총부채	금융부채		금융기관 부채	금융기관 부채 잔액
			비금융기관부채	직장대출, 개인이 빌린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을 계, 기타 부채 잔액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전세금 받은 것

3.4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평가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첫째, 현금흐름 측면의 평가를 위해 가계수지지표를 활용하였고, 둘째, 자산부채상태 측면의 평가를 위해 장기부채부담지표를 활용하였다. 셋째, 자영업자의 기업채무와 가계채무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혼재하는 양상이 있다는 점(정영금, 2001; 김광석, 2014; 김도균, 2015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가계수지지표는 재무비율을 통해 현금흐름 측면에서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총지출/총소득으로 산정한다. 과거 선행연구들이(Lytton et al.,

1991; 최윤지·최현자, 1998; 안승철·김년희, 2001; 최현자 외, 2003 등) 가계 수지지표의 준거기준을 0.9~1.0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양세정 외(2013)에서는 가계의 성장성과 저축성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한 0.7 이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세정 외(2013)의 준거기준을 적용하여, 가계수지 지표가 0.7 초과인 집단을 취약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재무비율을 통해 자산부채상태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총부채/총자산으로 산정한다. 장기부채부담지표의 준거기준은 주로 0.4 이하를 적용한다(Lytton et al., 2006; 양세정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장기부채부담지표가 0.4 초과인 집단을 취약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는 가계부채의 용도 중 창업 및 사업자금 목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가계부채로 사업관련 자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 부진과 이에 따른 가계의 재무적 곤경을 나타내므로, 일종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을 취약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현금흐름, 자산부채상태 측면에서의 불안정성, 불건전성을 겪거나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재무적인 취약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재무비율 충족 여부와 사업자금 부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취약성 여부를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4. 분석방법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빈도 등의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재무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 교차분석(chi-square),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를 비교하고, 가계의 재무취약성 층급 여부별로 재무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4.1.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거주지역을 살펴보았다.

<표 5>에 제시된 자영업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80%로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 평균은 57세로 나타났고, 연령대를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5개 집단으로 범주화한 경우 매우 특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60대가 25%, 70대 이상이 18%로,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40대(20%), 50대(27.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연령 구성은 임시·일용 근로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통계청, 2018; 박정수, 2018).

자영업자의 교육수준 또한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32.1%, 고졸 35.9%, 대졸 이상 32.0%로 세 집단이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2018)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의 63%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고, 중졸 이하는 8%이었던 것과는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즉 자영업자 집단은 저학력자의 구성 비율이 높아 저학력이 자영업자를 설명하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저숙련 근로자의 자영업 진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학력자가 모두 저숙련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Lofstrom(2013)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낮은 학력수준은 근로자의 낮은 숙련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숙련의 대용변수로 활용된다. 조사대상 자영업자 중 78.1%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가구원 수는 2.87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41.9%는 수도권에, 58.1%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

(n=1,334)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성별	남성	1,073(80.4)
	여성	261(19.6)
연령	30대 이하	125(9.4)
	40대	267(20.0)
	50대	365(27.4)
	60대	332(24.9)
	70대 이상	245(18.4)
	평균(세)	57.07(12.6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28(32.1)
	고졸	479(35.9)
	대졸 이상	427(32.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42(78.1)
	배우자 없음	292(21.9)
가구원 수(명)		2.87(1.24)
거주지역	수도권	559(41.9)
	비수도권	775(58.1)

4.2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은 사업체의 규모,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되며, 본 연구에서는 고용원 유무, 매출액 및 순수입 규모, 종사산업, 사업장 보유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4.2.1 자영업자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먼저 자영자는 957명으로, 전체 1,334명 중 약 72%를 차지하고 고용주는 377명으로 약 28%를 차지하였다. 즉 유급 고용원 없이 본인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 본인을 포함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자, 고용주 전체 평균 1.34명으로 나타났고, 고용주 집단의 경우, 유급 고용 종업원 수는 평균 4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외형,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연간매출액과 연간사업순수입(사업을 통해 얻은 총수입에서 영업비용, 세금, 제반활동비 등 총비용을 제한 값)을 조사하였다. 연간매출액은 평균 2억 880만 원이나 중위수가 5,000만 원에 그쳐 자영업자 가게 내에서도 매출의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체는 전체의 2.5%에 불과하였고 극소수의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표본이 존재하였다. 연간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 76%로, 소기업을 결정짓는 업종별 매출액 최소기준이 10억 원임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아주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임을 알 수 있다. 또 연간사업순수입의 경우 평균 3,466만 원으로 중위수 2,400만 원을 상회하였고, 특히 사업순수입이 적자인 자영업자가 19명 존재하였다.

<표 6>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

(n=1,334)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중위수
고용원 유무	고용주	377(28.3)	
	자영자	957(71.7)	
유급 고용원수 (n=371)	1명	133(35.8)	
	2-4명	151(40.7)	
	5-9명	57(15.4)	
	10명 이상	29(8.1)	
	평균(명)	3.99(8.30)	2.00
무급 가족종사자 수	평균(명)	1.34(.56)	1.00
연간매출액		20,880.22(131,086.00)	5,000
연간사업순수입		3,466.53(3,628.70)	2,400
종사산업	농림어업	298(22.4)	
	제조건설업	210(15.8)	
	도소매업	249(18.7)	
	숙박음식점업	115(8.6)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172(12.9)	
	개인서비스업	288(21.6)	
사업체 운영 장소	사업장(건물 및 땅)	1,049(78.6)	
	나의 집	29(2.2)	
	남의 집	42(3.1)	
	거리(노점 등)	33(2.5)	
	야외 작업현장	52(3.9)	
	운송수단(트럭, 배 등)	126(9.4)	
	기타	2(.1)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가입	208(15.6)	
	미가입	1,126(84.4)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848(63.6)	
	미등록	486(36.4)	

* 결측치로 인하여 각 셀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사업체 규모와 관련된 특성 외에 사업체 관련 특성으로는 종사산업, 사업체 운영 장소, 산재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이 있다.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산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산업 분류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 제공하는 중·소분류 단위의 산업(제9차 표준산업분류)을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업종의 성격, 기반 시설과 자본의 필요성, 진입장벽, 개인의 기술 및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어업(22.3%), 개인서비스업(21.6%), 도소매업(18.6%), 제조건설업(15.7%),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12.9%), 숙박음식점업(8.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먼저 약 79%의 자영업자는 건물, 땅 등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9%의 자영업자가 트럭, 자동차, 배 같은 운송수단을, 약 4%가 야외 작업현장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는 16%에 불과했고 84%의 사업체는 미가입 사업체로 나타났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지만, 가구 내 고용활동일 경우, 농업·임업 및 수렵업 중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⁷⁾ 고용원 없는 자영자 비율이 높고 고용주의 경우에도 고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는 63.6%로 조사되었다.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고 하며⁸⁾, 전체 자영업자의 36.4%가 미등록사업자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술하였듯,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농업, 노점상 등 미등록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join/targ.jsp>>

8) <<https://www.taxnet.co.kr/nMain.asp>>

4.2.2 고용원 유무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다수의 연구에서 자영업자를 구분 짓는 주요한 변수로 고용원 유무를 활용하는데, 이는 사업체의 규모와 직결될 뿐 아니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성지미·안주엽, 2003; 홍성희, 2005; 금재호·이인실, 2011; 안정화, 2017; 박정수, 2018). 이에 자영업자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로 나누어 사업체 특성을 비교하였다.

고용원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을 비교한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인을 포함한 종사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고용주 집단이 평균 1.45명으로 자영자 집단보다 많게 나타났다. 매출은 고용원 유무와 함께 사업규모의 대표적 지표인 만큼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난다. 연간매출액 평균은 자영자가 5,746만 원, 고용주가 5억 9,674만 원으로, 사업순수입은 자영자가 2,487만 원, 고용주가 5,95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매출액을 3분위로 나누어 보면 두 집단 간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자영자는 44%, 42%가 매출액 하, 중 집단에 분포하고 있고, 고용주는 73%가 매출액 상 집단에 분포하고 있다. 산업별 분포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농림어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은 자영자 집단에서,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은 고용주 집단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주의 92%인 대다수가 물리적인 장소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자영자는 운송수단 12%, 거주지 7%도 비교적 많은 응답을 보이는 장소였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고용주의 92%가 등록사업자인 반면 자영자의 52%만이 등록사업자로 나타났다.

<표 7> 고용원 유무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t/x ²
		자영자 (n=957)	고용주 (n=377)	
무급 가족종사자 수(명)		1.30(.52)	1.45(.63)	-4.01***
연간매출액 ⁹⁾		5,746.01(12,892.68)	59,674.39(242,539.34)	-4.28***
연간사업순수입		2,487.39(2,167.96)	5,952.06(5,108.52)	-12.72***
연간매출액분위	매출액 하	414(43.5)	19(5.1)	445.97***
	매출액 중	402(42.3)	83(22.4)	
	매출액 상	135(14.2)	269(72.5)	
종사산업	농림어업	274(28.7)	24(6.4)	179.39***
	제조건설업	112(11.7)	98(26.1)	
	도소매업	164(17.2)	85(22.6)	
	숙박음식점업	48(5.0)	67(17.8)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155(16.2)	17(4.5)	
	개인서비스업	203(21.2)	85(22.6)	
사업체장소	사업장(건물 및 땅)	703(73.5)	346(91.8)	64.32***
	나의 집	28(2.9)	1(0.3)	
	남의 집	35(3.7)	7(1.9)	
	거리(노점 등)	31(3.2)	2(0.5)	
	야외 작업현장	39(4.1)	13(3.4)	
	운송수단(트럭, 배)	119(12.4)	7(1.9)	
	기타	1(0.1)	1(0.3)	
사업장유무	사업장 있음	342(92.2)	703(73.5)	55.89***
	사업장 없음	29(7.8)	254(26.5)	
산재보험가입	가입	53(5.5)	155(41.1)	260.08***
	미가입	904(94.5)	222(58.9)	
사업자등록	등록	500(52.2)	348(92.3)	187.42***
	미등록	457(47.8)	29(7.7)	

*p<.05, **p<.01, ***p<.001

9) 결측치로 인하여 자영자 n=951, 고용주 n=371, 총 응답자 n=1,322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2.3 매출액 수준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자영업자의 매출액 수준에 따른 사업체 특성을 비교한 내용은 <표 8>에 제시하였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집단 구분을 하여 논의하기 위해, 전체 자영업자의 연간매출액 규모를 상중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간매출액이 0에서 3,000만 원 미만인 하 집단, 3,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인 중 집단, 9,000만 원 이상이 상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 세 집단은 각각 32%, 36%, 32%가량을 차지하였고 균등한 비율로 나타나지 못한 것은 경계 값에 표본이 다수 모여 있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에서 알 수 있듯 매출액 분위는 매출액과 종사자 수와 같은 사업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매출액 분위에 따라 고용원 수와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종사산업도 차이를 보이는데 매출액 하 집단은 농림어업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중 집단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매출액 상 집단은 제조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매출액 상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사업장이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2.4 종사산업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자영업자의 종사산업에 따른 사업체 특성을 비교한 내용은 <표 9>에 제시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많이 나타났고,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이 가장 적었다. 연간매출액 평균은 제조건설업과 도소매업이 4억 원 이상으로, 사업순수입 평균은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이 4천만 원 이상으로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유무

<표 8> 매출액 수준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F/x ²
		매출액 하(n=433)	매출액 중(n=485)	매출액 상(n=404)	
고용원 수(명) ¹⁰⁾		1.28 a	2.11 a	4.73 a	4.14*
무급가족종사자 수(명)		1.30 a	1.33 ab	1.42 b	5.37**
종사 산업	농림어업	202(46.7)	70(14.5)	25(6.2)	321.35***
	제조건설업	24(5.5)	79(16.3)	103(25.6)	
	도소매업	47(10.9)	84(17.4)	115(28.5)	
	숙박음식점업	17(3.9)	39(8.1)	59(14.6)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48(11.1)	93(19.2)	30(7.4)	
	개인서비스업	95(21.9)	119(24.6)	71(17.6)	
사업장 유무	사업장 있음	316(73.0)	361(74.4)	364(90.1)	52.15***
	사업장 없음	117(27.0)	124(25.6)	40(9.9)	
산재보험 가입	가입	8(1.8)	43(8.9)	152(37.6)	230.63***
	미가입	425(98.2)	442(91.1)	252(62.4)	
사업자 등록	등록	115(26.6)	344(70.9)	378(93.6)	423.10***
	미등록	318(73.4)	141(29.1)	26(6.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는 숙박음식점업의 보유 비율이 92%로 높았고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은 38%만이 보유하여 여타 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자 비율은 제조건설업에서 높았고, 사업자등록은 숙박음식점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제조건설업 등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10)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n=18), 중(n=82), 상(n=266)을 분석하였다.

<표 9> 종사산업에 따른 사업체 특성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F
	농림어업 (n=298)	제조 건설업 (n=210)	도소매업 (n=249)	숙박 음식점업 (n=115)	운송창고 부동산임 대업 (n=172)	개인 서비스업 (n=288)	
고용원 수 ¹¹⁾	2.33 (3.16)	6.14 (15.18)	3.04 (2.90)	2.79 (2.43)	3.35 (3.39)	4.14 (4.48)	2.01
무급가족 종사자수	1.57(.57) d	1.30(.52) bc	1.31(.56) c	1.70(.70) d	1.09(.36) a	1.17(.44) ab	36.63***
연간 매출액 ¹²⁾	3,801.29 (11,385.23) a	43,624.76 (216,942.64) b	45,102.89 (223,193.72) b	13,327.13 (15,627.86) ab	7,833.09 (13,636.38) a	12,230.11 (35,297.63) ab	4.64***
연간사업 순수입	1,545.02 (2,228.66) a	4,562.23 (4,981.36) c	4,188.05 (3,937.19) bc	4,254.26 (3,136.08) c	3,317.02 (2,386.60) b	3,796.67 (3,419.68) bc	26.40***
사업장	있음	266(89.3)	176(83.8)	208(83.5)	106(92.2)	66(38.4)	205.27 ***
	없음	32(10.7)	34(16.2)	41(16.5)	9(7.8)	106(61.6)	
산재 보험 가입	가 입	7 (2.3)	70 (33.3)	46 (18.5)	13 (11.3)	18 (10.5)	98.60 ***
	미 가 입	291 (97.7)	140 (66.7)	203 (81.5)	102 (88.7)	154 (89.5)	
사업자 등록	등 록	29 (9.7)	176 (83.8)	193 (77.5)	102 (88.7)	148 (86.0)	502.89 ***
	미 등 록	269 (90.3)	34 (16.2)	56 (22.5)	13 (11.3)	24 (14.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11)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림어업(n=24), 제조건설업(n=95), 도소매업(n=84), 숙박음식점업(n=67),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n=17), 개인서비스업(n=83)을 분석하였다.
12) 결측지로 인하여 분석대상자는 n=1,320이다.

4.3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4.3.1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자영업자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개별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거주지역 등으로 살펴보았다.

<표 10>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t/x ²
		자영자(n=957)	고용주(n=377)	
성별	남성	759(79.3)	314(83.3)	2.72
	여성	198(20.7)	63(16.7)	
연령	30대 이하	75(7.8)	50(13.3)	84.76***
	40대	163(17.0)	104(27.6)	
	50대	238(24.9)	127(33.7)	
	60대	256(26.8)	76(20.2)	
	70대 이상	225(23.5)	20(5.3)	
	평균(세)	58.91(12.83)	52.37(10.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376(39.3)	52(13.8)	100.12***
	고졸	337(35.2)	142(37.7)	
	대졸 이상	244(25.5)	183(48.5)	
배우자유무	배우자 유	725(75.8)	317(84.1)	10.96**
	배우자 무	232(24.2)	60(15.9)	
가구원 수(명)		2.72(1.23)	3.26(1.18)	-7.23***
거주지역	수도권	360(37.6)	199(52.8)	25.55***
	비수도권	597(62.4)	178(47.2)	

*p<.05, **p<.01, ***p<.001

고용원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표 10>),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수도권 거주 여부 등에서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 연령은 자영자가 58.91세, 고용주가 52.37세로 나타났고, 자영자는 60대가 26.8%, 70대 이상이 23.5%로 고령층에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자는 중졸 이하의 비율이 39.3%로 높은 반면, 고용주는 대졸 이상이 48.5%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율(84.1%)이 자영자(75.8%)보다 높았고, 평균 가구원 수는 자영자가 2.72명, 고용주가 3.26명으로 고용주가 많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자영자는 37.6%만이, 고용주는 52.8%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집단은 고령자, 저학력자이고, 배우자가 없고, 가구원 수가 적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4.3.2 매출액 수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매출액을 3분위로 구분하여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매출액이 낮을수록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다. 매출액 상-중-하 집단의 평균 연령은 각각 52세, 55세, 64세였고, 특히 매출액 하 집단의 경우, 70대 이상이 42%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고령자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매출액 하 집단은 중졸 이하가 56%로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상 집단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46.8%로 고학력자가 다수 분포하였다. 매출액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원 수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매출액 중 집단, 상 집단은 거주지역 비율은 수도권, 비수도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하 집단의 경우 수도권 거주비율이 29.6%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11> 매출액 수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F/x ²
		매출액 하 (n=433)	매출액 중 (n=485)	매출액 상 (n=404)	
성별	남성	310(71.6)	401(82.7)	353(87.4)	35.49***
	여성	123(28.4)	84(17.3)	51(12.6)	
연령	30대 이하	27(6.2)	38(7.8)	57(14.1)	286.55***
	40대	42(9.7)	117(24.1)	104(25.7)	
	50대	63(14.5)	154(31.8)	144(35.6)	
	60대	120(27.7)	127(26.2)	84(20.8)	
	70대 이상	181(41.8)	49(10.1)	15(3.7)	
	평균(세)	64.16(13.26) a	55.22(10.70) b	52.00(10.39) c	127.54***
교육수준	중졸 이하	242(55.9)	129(26.6)	56(13.9)	194.17***
	고졸	113(26.1)	203(41.9)	159(39.4)	
	대졸 이상	78(18.0)	153(31.5)	189(46.8)	
배우자유무	배우자 유	297(68.6)	379(78.1)	356(88.1)	46.54***
	배우자 무	136(31.4)	106(21.9)	48(11.9)	
가구원 수(명)		2.39 (1.11) a	2.93(1.22) b	3.32(1.21) c	64.54***
거주지역	수도권	128(29.6)	209(43.1)	211(52.2)	45.09***
	비수도권	305(70.4)	276(56.9)	193(47.8)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4.3.3 종사산업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종사산업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숙박음식점업(39.1%), 개인서비스업(33.7%), 도소매업(20.9%) 등은 여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농림어업과 운송창고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개인서비스업이

<표 12> 종사산업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F/x ²
		농림어업 (n=298)	제조 건설업 (n=210)	도소매업 (n=249)	숙박 음식점업 (n=115)	운송창고 부동산임 대업 (n=172)	개인 서비스업 (n=288)	
성별	남성	252 (84.6)	194 (92.4)	197 (79.1)	70 (60.9)	167 (97.1)	191 (66.3)	117.17 ***
	여성	46 (15.4)	16 (7.6)	52 (20.9)	45 (39.1)	5 (2.9)	97 (33.7)	
연령	30대 이하	4 (1.3)	12 (5.7)	30 (12.0)	19 (16.5)	11 (6.4)	49 (17.0)	415.27 ***
	40대	12 (4.0)	42 (20.0)	61 (24.5)	28 (24.3)	25 (14.5)	99 (34.4)	
	50대	44 (14.8)	89 (42.4)	65 (26.1)	31 (27.0)	61 (35.5)	74 (25.7)	
	60대	84 (28.2)	52 (24.8)	62 (24.9)	26 (22.6)	60 (34.9)	47 (16.3)	
	70대 이상	154 (51.7)	15 (7.1)	31 (12.4)	11 (9.6)	15 (8.7)	19 (6.6)	
	평균 (세)	68.15 (10.34) d	55.28 (9.52) bc	54.88 (12.26) bc	52.88 (11.95) ab	56.95 (9.99) c	50.52 (11.41) a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9 (66.8)	43 (20.5)	61 (24.5)	34 (29.6)	47 (27.3)	44 (15.3)	311.80 ***
	고졸	71 (23.8)	106 (50.5)	93 (37.3)	41 (35.7)	89 (51.7)	78 (27.1)	
	대졸	28 (9.4)	61 (29.0)	95 (38.2)	40 (34.8)	36 (20.9)	166 (57.6)	
	대졸 이상							
배우 자 유무	배우 자유	229 (76.8)	183 (87.1)	191 (76.7)	77 (67.0)	145 (84.3)	215 (74.7)	24.79 ***
	배우 자무	69 (23.2)	27 (12.9)	58 (23.3)	38 (33.0)	27 (15.7)	73 (25.3)	
가구원 수 (명)		2.39(1.10) a	3.20(1.23) c	2.95(1.33) bc	2.85(1.27) b	3.03(1.03) bc	2.99(1.25) bc	14.08 ***
거주 지역	수도 권	45 (15.1)	118 (56.2)	120 (48.2)	45 (39.1)	98 (57.0)	132 (45.8)	127.84 ***
	비수 도권	253 (84.9)	92 (43.8)	129 (51.8)	70 (60.9)	74 (43.0)	156 (54.2)	
	도권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가장 낮은 연령의 특성을 보였다. 농림어업은 평균 연령이 68.15세로 타 집단에 비해 크게 높음은 물론 70대 이상의 비율이 52%로 나타나 특히나 고령화의 특성을 갖는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도소매업은 평균 연령이 54.88세, 70대 이상이 12.4%, 60대가 24.9%의 비율을 보였으며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은 평균 연령이 56.95세, 60대가 34.9%로 모든 산업 중 가장 높은 60대 비율을 보였다. 산업별로 교육수준도 상이한데 중졸 이하는 농림어업(67%)에, 대졸 이상은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58%)이 높았다. 제조건설업과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은 고졸 종사자 비중이 각각 50.5%와 51.7%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건설업의 배우자가 있는 비율(87.1%)이 높고 가구원 수(3.2명)가 많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67%)이었다. 농림어업은 2.39명으로 가구원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이었으며 업종의 특성상 비수도권 거주 비율(84.9%)이 유의하게 높았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60.9%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4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 비교

4.4.1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비교

자영업자의 가계재무 특성은 소득·지출과 자산·부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고용원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상태를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계가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가계보다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모든 측면에서 영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총소득은 자영업자 가계 4,312만원, 고용주 가계 8,164만원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은 유의하게 고용주 가계가 높았으나, 이전소득은 자영업자 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총지출은 자영자 가계 2,687만 원, 고용주 가계 4,443만 원이었으며,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서 고용주 가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지출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t
	자영자(n=957)	고용주(n=377)	
가계소득	4,312.15(3,119.74)	8,164.61(5,996.74)	-11.85***
근로소득	3,606.73(2,644.83)	7,450.42(5,005.88)	-14.15***
금융소득	22.70(146.33)	23.09(117.82)	-0.04
부동산소득	165.40(1,443.13)	408.81(2,847.52)	-1.58*
이전소득	450.80(1,050.42)	222.46(688.49)	4.65***
기타소득	66.51(706.19)	59.83(440.88)	.17
총지출	2,688.42(1,481.17)	4,444.30(2,480.50)	-12.87***
소비지출	1,962.72(1,075.89)	3,101.41(1,845.14)	-11.25***
식료품	619.91(310.97)	882.91(408.38)	-11.28***
주거비	247.77(169.81)	345.61(291.88)	-6.11***
교육비	234.63(468.97)	585.87(959.49)	-6.79***
의료비	86.63(146.07)	64.39(87.10)	3.41**
교통비	319.72(239.60)	507.21(329.99)	-10.03***
통신비	150.16(96.54)	212.59(108.14)	-10.27
기타지출	303.89(316.87)	502.82(637.59)	-5.78***
비소비지출	725.70(556.57)	1,342.89(913.08)	-12.25***

*p<.05, **p<.01, ***p<.001

총자산은 자영자 가계 2억 9,148만 원, 고용주 가계 5억 1,430만 원이었으며, 금융자산의 경우 은행예금, 저축성보험 같은 저축성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 모두 고용주 가계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부동산의 경우 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이외 항목 모두 고용주 가계가 유의하게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부채는 자영자 가계 4,430만 원, 고용주 가계 1억 2,034만 원이었으며,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모두 고용주 가계의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금융부채의 경우는 고용주 가계가 약 3배의 보유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금융기관 부채액에 기인한 차이이며, 비금융기관 부채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자산부채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t
	자영자(n=957)	고용주(n=377)	
총자산	29,148.46(33,559.77)	51,430.38(54,179.60)	-7.44***
금융자산	4,671.02(8,392.63)	7,930.60(11,635.70)	-4.95***
저축액	3,109.10(6,643.81)	5,557.80(9,398.79)	-4.62***
은행예금	2,082.57(5,980.92)	3,446.20(8,124.08)	-2.95**
주식채권신탁	96.34(1,221.50)	107.16(907.08)	-0.15
저축성보험	861.97(1,560.31)	1,971.28(3,463.88)	-5.98***
기타금융자산	68.21(827.39)	33.16(359.95)	.79
전월세보증금	1,561.92(5,092.51)	2,372.79(7,279.40)	-1.98*
부동산자산	24,477.45(31,262.52)	43,499.79(51,682.03)	-6.68***
거주주택	13,776.34(16,088.85)	27,551.50(30,818.99)	-8.24***
거주주택외부동산	10,701.10(23,984.55)	15,948.28(34,734.10)	-2.69**
총부채	4,430.55(10,655.41)	12,034.59(20,172.09)	-6.94***
금융부채	3,383.32(7,915.35)	9,845.99(18,453.37)	-6.56***
금융기관부채	3,223.74(7,798.42)	9,642.71(18,403.76)	-6.54***
비금융기관부채	159.58(1,507.31)	203.29(1,337.33)	-0.49
임대보증금	1,047.23(5,551.28)	2,188.59(7,034.50)	-2.82**

*p<.05, **p<.01, ***p<.001

4.4.2 매출액 수준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비교

자영업자의 가계재무 특성은 소득·지출과 자산·부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업체의 매출액 수준을 3분위로 나누어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상태를

<표 15> 매출액 수준에 따른 소득지출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F
	매출액 하(n=433)	매출액 중(n=485)	매출액 상(n=404)	
가계소득	3,205.52(3,100.82) a	4,833.76(2,614.09) b	8,388.37(5,749.80) c	185.57***
근로소득	2,226.19(2,030.76) a	4,370.70(2,261.86) b	7,665.79(4,820.77) c	302.80***
금융소득	17.73(57.44)	24.16(192.90)	26.82(124.01)	.47
부동산소득	257.24(2,045.03) a	92.55(590.75) a	386.49(2,755.62) a	2.53*
이전소득	617.82(840.16) b	318.82(1,221.93) a	224.68(670.28) a	19.62***
기타소득	86.54(942.03)	27.53(285.39)	84.60(557.19)	1.24
총지출	2,025.30(1,183.75) a	3,012.37(1,333.84) b	4,584.15(2,357.32) c	246.89***
소비지출	1,508.04(845.69) a	2,188.50(982.68) b	3,197.05(1,785.89) c	192.50***
식료품	516.69(279.57) a	686.50(297.32) b	889.04(407.30) c	133.39***
주거비	211.45(131.93) a	279.54(190.65) b	338.47(288.11) c	38.12***
교육비	284.46(471.61) a	617.55(935.74) b	327.99(652.02) c	73.07***
의료비	99.06(165.27) b	75.86(128.83) a	66.65(90.16) a	6.76**
교통비	243.30(209.64) a	356.93(237.05) b	527.20(321.53) c	127.72***
통신비	112.56(80.20) a	170.42(91.62) b	222.21(107.54) c	144.50***
기타지출	218.38(189.69) a	334.79(317.57) b	535.93(649.86) c	60.43***
비소비지출	517.26(453.15) a	823.87(523.18) b	1,387.10(875.81) c	201.5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비교한 결과, 세 집단 간에 총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모든 지출비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계소득은 매출액 하 집단이 3,205만 원, 중 집단이 4,833만 원, 상 집단이 8,38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소득은 상-중-하 집단 순서로 규모가 컸으나, 이전소득의 경우는 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아 공적·사적 영역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출액 수준에 따른 지출을 살펴보면 먼저 매출액 하 집단은 총지출액이 2,025만 원, 중 집단은 3,012만 원, 상 집단은 4,584만 원이었고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서, 매출액이 많은 집단일수록 지출액도 많았다. 의료비의 경우는 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에 해당 집단 내 고령층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매출액 규모 상 집단이 소득과 지출액이 많았으나, 이전소득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매출액 하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자산의 경우, 매출액 하 집단(28,772만 원)과 중 집단(26,725만 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매출액 상 집단(53,044만 원)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투자성 금융자산과 기타금융자산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은행예금, 저축성보험 등의 저축성 금융자산, 전월세보증금에서 매출액 상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매출액 상 집단(44,294만 원)이 중 집단(22,125만 원)과 하 집단(24,957만 원)보다 유의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분류에서 마찬가지로 거주주택과 거주주택외 부동산 모두 이와 유사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 총부채는 상 집단(12,513만 원)이 중 집단(4,759만 원)과 하 집단(3,036만 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금융부채 가운데 금융기관 부채가 매출액 상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비금융기관 부채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대보

<표 16> 매출액 분위에 따른 자산부채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F
	매출액 하 (n=433)	매출액 중 (n=485)	매출액 상 (n=404)	
총자산	28,772.75(36,707.92) a	26,725.04(31,388.98) a	53,044.45(51,406.98) b	56.29 ***
금융자산	3,815.12(9,193.02) a	4,599.75(6,666.82) a	8,750.10(11,894.34) b	33.67 ***
저축액	2,879.02(8,542.68) a	2,853.59(4,050.51) a	5,984.16(9,279.76) b	24.26 ***
은행예금	2,245.99(8,099.04) a	1,687.55(3,084.79) a	3,680.12(7,962.69) b	10.26 ***
주식채권신탁	26.10(368.29)	138.97(1,613.05)	133.42(1,013.82)	1.35
저축성보험	582.22(1,315.93) a	955.89(1,589.24) a	2,090.03(3,403.30) b	51.03 ***
기타금융자산	24.71(243.08)	71.18(1,041.08)	80.59(615.32)	.72
전월세보증금	936.10(3,464.40) a	1,746.16(5,116.22) a	2,765.94(8,066.30) b	10.49 ***
부동산자산	24,957.63(33,195.05) a	22,125.28(30,604.02) a	44,294.35(49,139.26) b	42.84 **
거주주택	12,979.21(15,776.93) a	13,494.76(15,554.00) a	27,519.60(30,139.43) b	63.83 ***
거주주택외부 동산	11,978.42(23,851.90) a	8,630.52(24,775.39) a	16,774.76(33,465.38) b	9.72 ***
총부채	3,036.49(8,999.14) a	4,759.87(11,631.19) a	12,513.96(19,574.04) b	55.03 ***
금융부채	2,231.41(7,351.23) a	3,545.23(7,765.63) a	10,381.29(17,944.92) b	57.84 ***
금융기관부채	2,023.90(7,070.53) a	3,466.94(7,748.64) a	10,129.95(17,921.46) b	57.14 ***
비금융기관부채	207.51(2,041.77)	78.29(514.02)	251.34(1,501.44)	1.71
임대보증금	805.08(3,833.61) a	1,214.64(6,724.84) ab	2,132.67(6,943.12) b	5.32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증금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상 집단(2,132만 원)이 하 집단(805만 원)보다 많은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4.4.3 종사산업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비교

종사산업에 따라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한 결과, 제조건설업(6,715만 원)이 가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농림어업(3,502만 원)의 가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에서 산업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제조건설업(6,307만 원)이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이었으며 농림어업은 근로소득(2,366만 원)이 가장 적고 이전소득(685만 원)이 가장 많은 산업이었다. 다른 소득원천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지출의 경우 모든 비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 규모와 마찬가지로 제조건설업(4,042만 원)이 지출규모가 가장 컸는데 이는 앞선 분석결과에서 보듯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가계의 가족원 수가 많은 것과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농림어업(1,995만 원)이 지출 규모가 가장 작은 양상을 띠었으나 의료비 지출(125만 원)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령자가 많은 농림어업의 특성의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가계는 적은 근로소득, 많은 이전소득, 가장 적은 총지출액,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소득지출 패턴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매출액 하 집단 자영업자와 유사하였다.

<표 17> 종사산업에 따른 소득지출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F
	농림어업 (n=298)	제조건설업 (n=210)	도소매업 (n=249)	숙박음식점업 (n=115)	운송창고부 동산임대업 (n=172)	개인서비스업 (n=288)	
가계 소득	3,502.39 (3,603.78) a	6,715.30 (4,389.41) c	5,959.95 (5,724.32) bc	5,646.61 (4,085.18) bc	5,359.42 (3,331.87) b	5,853.51 (4,355.61) bc	16.60 ***
근로 소득	2,366.20 (2,248.97) a	6,307.34 (4,359.04) c	5,218.73 (4,269.44) b	5,000.15 (3,685.69) b	4,739.77 (3,055.24) b	5,316.75 (4,008.34) b	35.15 ***
금융 소득	26.70 (72.08)	13.30 (46.39)	20.10 (91.11)	10.17 (58.69)	22.42 (155.62)	33.51 (243.56)	.79
부동 산 소득	365.66 (2,632.84)	188.18 (760.21)	418.55 (3,312.16)	149.78 (613.07)	126.74 (537.57)	71.83 (367.26)	1.28
이전 소득	685.28 (796.52) c	169.23 (309.82) a	259.93 (513.14) ab	421.84 (1,145.52) b	444.92 (1,388.25) bc	297.82 (1,252.77) ab	9.58* **
기타 소득	58.56 (470.79)	37.27 (275.03)	42.63 (203.00)	64.66 (475.61)	25.58 (146.40)	133.61 (1,219.21)	.93
총 지출	1,995.38 (1,246.37) a	4,042.34 (2,478.40) c	3,445.83 (1,996.15) b	3,202.23 (1,902.81) b	3,251.90 (1,635.10) b	3,509.08 (1,879.56) b	35.84 ***
소비 지출	1,473.10 (852.51) a	2,828.09 (1,906.22) c	2,466.07 (1,421.48) b	2,328.63 (1,425.65) b	2,262.31 (1,023.72) b	2,561.92 (1,397.11) bc	31.30 ***
식료 품	509.44 (310.54) a	829.09 (369.10) d	742.31 (363.86) cd	616.07 (345.02) b	727.19 (307.35) c	757.54 (360.75) cd	28.06 ***
주거 비	184.11 (99.15) a	303.49 (215.30) bc	303.13 (284.46) bc	331.51 (301.33) c	262.88 (128.40) b	309.46 (209.45) bc	16.17 ***
교육 비	54.24 (214.67) a	472.69 (808.20) c	411.71 (672.71) bc	414.37 (977.73) bc	304.60 (491.61) b	439.63 (707.66) bc	15.71 ***
의료 비	125.56 (176.69) b	69.60 (109.70) a	65.49 (112.82) a	72.52 (96.97) a	73.64 (128.69) a	61.21 (113.75) a	9.50* **
교통 비	271.57 (231.01) a	478.23 (311.39) c	391.28 (285.25) b	357.50 (281.29) b	365.51 (297.94) b	392.33 (256.38) bc	14.99 ***
통신 비	109.53 (83.19) a	204.49 (101.84) c	177.73 (113.38) b	170.61 (94.20) b	192.14 (95.39) bc	176.63 (100.87) bc	29.69 ***
기타 지출	218.66 (198.87) a	470.51 (735.26) c	374.41 (368.53) bc	366.05 (405.66) bc	336.35 (251.85) b	425.13 (462.62) bc	10.51 ***
비 소비 지출	522.28 (499.11) a	1,214.25 (810.85) c	979.76 (767.31) b	873.60 (711.51) b	989.58 (765.96) b	947.17 (671.52) b	27.52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표 18> 종사산업에 따른 자산부채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F
	농림어업 (n=298)	제조건설업 (n=210)	도소매업 (n=249)	숙박음식점업 (n=115)	운송창고부 동산임대업 (n=172)	개인서비스 업 (n=288)	
총자산	40,318.39 (44,747.74) a	39,485.55 (45,348.64) a	35,853.31 (42,432.12) a	31,623.11 (43,914.79) a	32,499.05 (41,656.09) a	30,571.10 (32,601.93) a	2.37*
금융자산	3,570.91 (9,983.38) a	6,804.10 (11,024.32) b	6,269.37 (10,124.47) b	5,031.81 (8,248.60) ab	5,455.35 (6,542.06) ab	6,548.31 (9,076.18) b	4.32**
저축액	3,508.22 (9,985.77)	4,107.18 (6,603.52)	4,072.02 (8,309.32)	3,017.23 (6,332.17)	3,578.99 (4,541.21)	4,111.95 (6,703.41)	0.58
은행예금	2,845.44 (9,455.66)	2,681.77 (6,135.80)	2,613.68 (7,281.36)	1,545.48 (3,871.98)	1,863.12 (3,002.91)	2,535.20 (5,431.94)	.98
주식채권 신탁	.00 (.00)	30.95 (277.11)	89.16 (561.32)	26.09 (279.75)	269.19 (2,551.72)	189.58 (1,329.63)	1.82
저축성 보험	603.59 (1,296.06) a	1,337.31 (1,871.66) b	1,337.45 (2,757.96) b	1,436.97 (3,539.94) b	1,410.06 (2,132.88) b	1,272.80 (2,444.87) b	4.88***
기타 금융자산	59.19 (575.20)	57.14 (584.14)	31.73 (266.70)	8.70 (93.25)	36.63 (285.71)	114.38 (1,319.76)	.54
전월세 보증금	62.68 (446.32) a	2,696.93 (8,869.23) b	2,197.35 (6,214.36) b	2,014.58 (5,500.08) b	1,876.35 (4,933.70) b	2,436.36 (5,894.56) b	7.47***
부동산 자산	36,747.48 (40,671.29) b	32,681.45 (42,885.58) ab	29,583.94 (39,572.84) ab	26,591.30 (40,255.66) a	27,043.70 (41,336.49) ab	24,022.79 (30,456.96) a	3.73**
거주 주택	13,231.88 (16,083.73) a	21,210.01 (23,956.00) b	19,410.24 (23,987.04) b	17,908.70 (25,229.35) ab	17,694.83 (16,324.27) ab	18,130.26 (25,639.85) ab	3.82**
거주 주택의 부동산	23,515.60 (32,212.48) b	11,471.44 (28,179.91) a	10,173.69 (25,287.22) a	8,682.61 (23,093.00) a	9,348.88 (33,706.01) a	5,892.53 (15,545.54) a	14.84***
총부채	3,265.03 (8,732.11) a	8,710.43 (17,232.68) b	7,212.80 (15,399.25) b	9,048.70 (16,580.93) b	7,492.09 (18,859.05) b	6,380.83 (11,243.58) ab	5.05***
금융부채	2,743.22 (8,129.92) a	7,431.38 (16,209.76) b	5,765.82 (13,662.46) ab	7,286.09 (14,350.49) b	5,290.93 (13,315.04) ab	4,778.05 (8,571.82) ab	4.71***
금융기관 부채	2,522.42 (7,803.91) a	7,296.19 (16,210.18) b	5,599.59 (13,683.65) b	6,885.22 (14,108.93) b	5,188.02 (13,319.25) ab	4,673.95 (8,484.23) ab	4.76***
비 금융기관 부채	220.81 (2,394.38)	135.19 (860.68)	166.22 (995.53)	400.87 (2,185.98)	102.91 (549.58)	104.10 (688.49)	.85
임대 보증금	521.81 (3,247.69)	1,279.05 (5,540.11)	1,446.98 (5,336.73)	1,762.61 (6,744.53)	2,201.16 (9,689.02)	1,602.78 (5,960.48)	2.0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종사산업에 따른 가계의 자산부채를 비교한 것은 <표 18>에 제시하였다. 자산과 부채는 종사산업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총자산 규모는 농림어업이 40,319만 원으로 가장 크고, 개인서비스업이 30,571만 원으로 가장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자산의 경우는 제조건설업(6,804만 원), 도소매업(6,269만 원), 개인서비스업(6,548만 원)이 나머지 산업 집단보다 많았다. 금융자산 가운데 저축성보험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농림어업의 저축성보험(603만 원)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적었다. 또 전월세보증금도 농림어업(62만 원)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를 보였다. 부동산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거주주택 가치(13,231만 원)가 비교적 낮았으나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가치(23,515만 원)는 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총부채는 농림어업이 3,265만 원을 보유하여 가장 적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금융부채의 규모는 제조건설업(7,431만 원)과 숙박음식점업(7,286만 원)이 다른 집단보다 컸고 농림어업(2,743만 원)은 다른 집단보다 작다는 결과를 보였다.

4.5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분석

4.5.1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인 가계 수지지표는 총지출/가계소득이 0.7 이하인 가계를 충족 가계로, 0.7 초과인 가계를 미충족 가계로 구분하였다. 전체 1,334개의 표본 중 가계소득이 집계되지 않은 3개의 표본을 제외하고 1,331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총부채/총자산이 0.4 이하인 가계를 충족 가계로, 0.4 초과인 가계를 미충족 가계로 구분하였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가

666가구(49.9%)였고, 부채를 보유한 가계 668개의 표본 중 총자산이 집계되지 않은 6개의 표본을 제외하고 662 가구의 장기부채부담지표를 산출하여 충족 여부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기준인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을 우선 살펴보았다. 부채보유 목적은 사업자금, 주택마련, 부채관련, 생활비, 재테크, 전세금마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금 충당이 가계부채의 주목적인 가계가 232가구로, 부채를 보유한 668 가구의 34.8%에 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사업관련 부채가 국내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주택마련보다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는지 여부로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는 앞서 사업체 관련 특성이 자영업자의 가계채무 특성과 가지는 관계성을 검토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업체와 관련된 부채가 가계부채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가계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 빈도를 제시하면 <표 19>과 같다. 가계수지지표를 미충족하는 가계는 현금흐름 측면에서 재무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장기부채부담지표를 미충족하는 가계는 자산부채상태 측면에서 재무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사업자금 부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9>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

구분	준거기준	항목	빈도(%)
가계수지지표	0.7 이하	미충족(취약가계)	557(41.8)
		충족	774(58.2)
장기부채부담지표	0.4 이하	미충족(취약가계)	249(18.9)
		충족	1,071(81.1)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취약가계)	232(17.4)
		미보유	1,102(82.6)

4.5.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 비교

4.5.2.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 비교

-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계수지지표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20>와 같다. 우선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는 특성을 위주로 보면 40대 자영업자는 가계수지지표 미충족 비율(23.5%)이 높게 나타나다가 60대에 충족 비율(27.8%)이 높아지고, 70대 이상에서 다시 미충족 비율(19.9%)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를 취약성으로 논의하면, 소득창출과 지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40~50대에는 현금흐름 측면의 취약성이 높을 가능성을 보이다가 가계 재무적 활동에서 물러나는 60대에 취약성이 양호해질 가능성을 보이고, 더 연령이 높아지면 다시 취약 가능성이 높아지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가계수지지표 미충족 가계가 수도권에 거주(45.4%)하고, 충족 가계가 비수도권에 거주(60.7%)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t/x ²
		미충족(n=557)	충족(n=774)	
성별	남성	445(79.9)	625(80.7)	0.15
	여성	112(20.1)	149(19.3)	
연령	30대 이하	49(8.8)	73(9.4)	13.17**
	40대	131(23.5)	136(17.6)	
	50대	149(26.8)	216(27.9)	
	60대	117(21.0)	215(27.8)	
	70대 이상	111(19.9)	134(17.3)	
	평균(세)	56.72(12.96)	57.41(12.26)	-0.9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9(32.1)	249(32.2)	2.01
	고졸	190(34.1)	289(37.3)	
	대졸 이상	188(33.8)	236(30.5)	
가구원 수(명)		2.94(1.27)	2.83(1.21)	1.6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3(77.7)	607(78.4)	0.08
	배우자 없음	124(22.3)	167(21.6)	
거주지역	수도권	253(45.4)	304(39.3)	5.02*
	비수도권	304(54.6)	470(60.7)	

*p<.05, **p<.01, ***p<.001

4.5.2.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 비교

-자산부채상태 측면의 재무취약성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장기부채부담지표의 충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미충족 가계의 자영업자 평균 연령(50.95세)이 충족 가계의 자영업자 평균 연령(58.59세)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연령대로 구분하여도 알 수 있는데, 50대를 기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동시에 미충족 비율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충족 여부에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기부채부담지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교육수준(근로자의 숙련도)과 소득, 자산 규모 등에 따른 부채보유액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장기부채부담지표를 미충족하는 자영업자 가계는 충족 가계보다 평균 가구원 수가 3.08명으로 많았는데, 이는 가계의 지출수준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가계수지지표와 유사하게 장기부채부담지표 미충족 가계가 수도권(49.4%)에, 충족 가계가 비수도권(59.7%)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t/x ²
		미충족(n=249)	충족(n=1,071)	
성별	남성	205(82.3)	860(80.3)	0.53
	여성	44(17.7)	211(19.7)	
연령	30대 이하	47(18.9)	74(6.9)	79.63***
	40대	72(28.9)	191(17.8)	
	50대	71(28.5)	291(27.2)	
	60대	47(18.9)	284(26.5)	
	70대 이상	12(4.8)	231(21.6)	
	평균(세)	50.95(11.22)	58.59(12.41)	
교육수준	중졸 이하	40(16.1)	384(35.9)	45.56***
	고졸	93(37.3)	382(35.7)	
	대졸 이상	116(46.6)	305(28.5)	
가구원 수(명)		3.08(1.25)	2.83(1.22)	2.86*
배우자 유무	배우자있음	196(78.7)	841(78.5)	0.00
	배우자없음	53(21.3)	230(21.5)	
거주지역	수도권	123(49.4)	432(40.3)	6.80*
	비수도권	126(50.6)	639(59.7)	

*p<.05, **p<.01, ***p<.001

4.5.2.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 비교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22>) 사업자금 목적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자영업자 평균 연령은 53.15세로 해당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자영업자 평균 연령 57.89세보다 더 낮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업자금 관련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70대 이상의 자영업자는 보유 가계에서 8.6%, 미보유 가계에서 20.4%의 비중을 차지해 양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 고졸인 경우 사업자금 목적 가계부채를 보유하는 비율(각각 37.9%, 40.5%)이 높고 중졸 이하 저학력자인 경우 관련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 비율(34.3%)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은 장기부채부담지표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액 규모나 대출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창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이거나 소득창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고학력(고숙련)자인 경우에 부채 자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2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업자금 목적 가계부채 보유 여부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t/x ²
		보유(n=232)	미보유(n=1,102)	
성별	남성	197(84.9)	876(79.5)	3.58
	여성	35(15.1)	226(20.5)	
연령	30대 이하	32(13.8)	93(8.4)	29.12***
	40대	64(27.6)	203(18.4)	
	50대	64(27.6)	301(27.3)	
	60대	52(22.4)	280(25.4)	
	70대 이상	20(8.6)	225(20.4)	
	평균(세)	53.15(11.49)	57.89(12.67)	-5.26***
교육수준	중졸 이하	50(21.6)	378(34.3)	14.44**
	고졸	94(40.5)	385(34.9)	
	대졸 이상	88(37.9)	339(30.8)	
가구원 수(명)		3.00(1.23)	2.85(1.24)	1.76
배우자유무	배우자 있음	189(81.5)	853(77.4)	1.84
	배우자 없음	43(18.5)	249(22.6)	
거주지역	수도권	107(46.1)	452(41.0)	2.05
	비수도권	125(53.9)	650(59.0)	

*p<.05, **p<.01, ***p<.001

4.5.3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여부 비교

4.5.3.1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 비교

-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

사업체 특성에 따라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를 비교한 결과, <표 23>와 같이 자영업자가 소득지출 기준을 미충족하여 현금흐름 측면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수지지표를 미충족하는 가

계의 비율(76.7%)이 충족하는 가계의 비율(68.1%)보다 높은 반면, 고용주의 경우 가계수지지표를 충족하는 가계의 비율(31.9%)이 미충족하는 가계의 비율(23.3%)보다 높았다. 또 가계수지지표를 미충족하는 가계의 연간매출액(11,013만 원)은 충족 가계의 매출액(27,995만 원)과 비교하여, 지표를 미충족하는 가계의 사업순수입(2,669만 원)은 충족 가계(4,038만 원)와 비교하여 2배가량 유의하게 낮았다.

<표 23>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t/x ²
		미충족(n=557)	충족(n=774)	
고용원 유무	고용주	130(23.3)	247(31.9)	11.72**
	자영자	427(76.7)	527(68.1)	
연간매출액		11,013.93(37,647.11)	27,995.82(168,588.38)	-2.70**
연간사업순수입		2,669.28(2,739.38)	4,038.36(4,059.97)	-7.34***
종사 산업	농림어업	127(22.9)	171(22.1)	3.32
	제조건설업	86(15.5)	124(16.0)	
	도소매업	100(18.0)	148(19.1)	
	숙박음식점업	43(7.7)	72(9.3)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68(12.3)	103(13.3)	
	개인서비스업	131(23.6)	156(20.2)	
사업장 유무	사업장 있음	426(76.5)	622(80.4)	2.91
	사업장 없음	131(23.5)	152(19.6)	
산재보 험가입	가입	73(13.1)	134(17.3)	4.36*
	미가입	484(86.9)	640(82.7)	
사업자 등록	등록	340(61.0)	506(65.4)	2.62
	미등록	217(39.0)	268(34.6)	

*p<.05, **p<.01, ***p<.001

4.5.3.2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 비교

-자산부채상태 측면의 재무취약성

<표 24>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 비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 빈도(%)		t/x ²
		미충족(n=249)	충족(n=1,071)	
고용원 유무	고용주	98(39.4)	277(25.9)	18.08***
	자영자	151(60.6)	794(74.1)	
연간매출액		19,847.40(50,107.24)	21,302.71(144,258.79)	- .15
연간사업순수입		3,715.13(4,691.80)	3,427.87(3,347.86)	1.12
종사 산업	농림어업	23(9.3)	272(25.4)	43.18***
	제조건설업	43(17.4)	167(15.6)	
	도소매업	47(19.0)	195(18.2)	
	숙박음식점업	38(15.4)	75(7.0)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31(12.6)	141(13.2)	
	개인서비스업	65(26.3)	221(20.6)	
사업장 유무	사업장 있음	49(19.7)	232(21.7)	0.47
	사업장 없음	200(80.3)	839(78.3)	
산재보 험가입	가입	51(20.5)	156(14.6)	5.34*
	미가입	198(79.5)	915(85.4)	
사업자 등록	등록	206(82.7)	635(59.3)	48.01***
	미등록	43(17.3)	436(40.7)	

*p<.05, **p<.01, ***p<.001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를 비교한 결과, <표 24>와 같이 자영자 가계의 충족 비율(74.1%)이 미충족 비율(60.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은 충족 비율(25.4%)이, 숙박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은 미충족 비율(각각 15.4%, 26.3%)이 높았다. 또 산재보험 가입 사업체의 미충족 비율(20.5%)이, 등록사업자의 미충족 비율(82.7%)이 높

게 나타났다.

4.5.3.3 사업체 특성에 따른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 비교

<표 25> 사업체 특성에 따른 사업자금 목적 가계부채 보유 여부 비교

구분	항목	평균(표준편차) / 빈도(%)		t/x ²
		보유(n=232)	미보유(n=1,102)	
고용원 유무	고용주	102(44.0)	275(25.0)	34.16***
	자영자	130(56.0)	827(75.0)	
연간매출액		26,145.44(67,057.51)	19,782.90(140,808.88)	- .66
연간사업순수입		3,872.33(4,430.75)	3,381.10(3,432.38)	-1.87
종사 산업	농림어업	44(19.0)	254(23.1)	15.39**
	제조건설업	42(18.2)	168(15.3)	
	도소매업	47(20.3)	202(18.3)	
	숙박음식점업	32(13.9)	83(7.5)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21(9.1)	151(13.7)	
	개인서비스업	45(19.5)	243(22.1)	
사업장 유무	사업장 있음	201(86.6)	848(77.0)	10.70**
	사업장 없음	31(13.4)	254(23.0)	
산재보 험가입	가입	57(24.6)	151(13.7)	17.19***
	미가입	175(75.4)	951(86.3)	
사업자 등록	등록	181(78.0)	667(60.5)	25.31***
	미등록	51(22.0)	435(39.5)	

*p<.05, **p<.01, ***p<.001

사업체 특성에 따라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를 비교한 결과 <표 25>와 같이 고용주가 사업목적 가계부채를 보유한 비율(44%)이 높았다. 종사산업을 살펴보면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비율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23.1%),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13.7%), 개인서비스업(22.1%)이었다. 이와 달리 사업자금 관련 부채를 보유할 비율이 높은 산

업은 숙박음식점업(13.9%), 제조건설업(18.2%), 도소매업(20.3%)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86.6%)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체(24.6%)가, 사업자등록 사업체(78%)가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미루어보면 취약성의 기준을 소득지출 특성으로 둘 경우와 자산부채 특성으로 둘 경우의 취약가능성이 높은 집단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기준 모두에서 미충족하여 취약한 가계가 발견된다기보다는 소득지출 측면에서 취약가계로 분류되는 경우 가계재무의 규모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산부채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규모가 영세하여 지표를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소득지출 측면에서의 규모 큰 가계가 자산부채 측면의 규모 또한 크고, 자산부채 측면 취약성 여부 또한 불건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4.5.4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충족 여부별 재무구조 비교

이전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소득·지출과 자산·부채 두 측면 모두를 미충족하는 공통된 취약가계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두 지표에서 취약성을 가지는 특성이 상반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에 각각의 지표 충족 여부에 유효한 재무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흐름 측면, 자산부채상태 측면, 사업자금 조달 측면 재무취약성의 충족 여부별로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재무구조를 비교해보았다.

4.5.4.1 가계수지표 충족 여부별 재무구조 비교

먼저 가계수지표 충족 여부로 보면, <표 26>에서 보듯 지출을 제외한 항목에서 미충족 가계의 규모가 유의하게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즉 미충족

가계의 소득, 자산, 부채가 충족 가계의 충족 가계보다 적었다. 특히 가계소득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남을 확인하여 가계소득 규모가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요인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계소득(로그변환 값)와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 두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Pearson 상관계수가 -.415로 나타났으나,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가 종속변수일 때 가계소득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분석 모형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 취약성 결정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 분석 모형에서 두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표 26>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별 재무구조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t
	미충족(n=557)	충족(n=774)	
가계소득	3,626.47(2,717.88)	6,698.76(5,033.87)	-14.325***
총지출	3,232.85(2,186.30)	3,162.30(1,818.03)	0.641
총자산	30,140.52(32,064.80)	39,380.28(47,069.71)	-4.258***
총부채	5,100.80(10,194.62)	7,662.70(16,761.75)	-3.456**
순자산	25,039.71(28,593.22)	31,717.58(41,163.53)	-3.492***

*p<.05, **p<.01, ***p<.001

4.5.4.2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별 재무구조 비교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를 보면(<표 27>) 가계소득은 미충족 가계의 평균 가계소득이 높게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지출의 경우는 미충족 가계의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자산은 미충족 가계의 보유액이 충족 가계보다 적었지만 부채 보유액은 미충족 가계가 약 6배가량 많아 순자산 규모가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에 주요한 결정요인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표 27>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별 재무구조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t
	미충족(n=249)	충족(n=1,071)	
가계소득	5,890.48(4,038.25)	5,324.42(4,593.71)	1.79
총지출	3,575.04(2,297.78)	3,110.70(1,897.00)	3.336**
총자산	29,704.59(37,219.24)	37,243.60(42,601.12)	-2.573*
총부채	20,424.94(23,414.34)	3,423.59(8,774.38)	11.275***
순자산	9,279.65(21,785.24)	33,820.01(37,789.42)	-13.635***

*p<.05, **p<.01, ***p<.001

4.5.4.3 사업자금 목적 가계부채 보유 여부별 재무구조 비교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를 보면, <표 28>과 같이 지출액은 사업자금 관련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과 총자산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총부채는 사업자금 관련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계에서 약 3배가량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무특성보다도 부채보유액이 사업자금 목적 부채의 보유 여부와 관련성이 큼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총부채에 사업자금 목적 부채가 포함되

<표 28>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별 재무구조 비교

구분	평균(표준편차)		t
	보유(n=232)	미보유(n=1,102)	
가계소득	5,814.95(3,784.46)	5,313.72(4,618.33)	1.547
총지출	3,465.05(1,891.68)	3,125.61(1,998.18)	2.373*
총자산	32,946.73(43,832.06)	35,971.59(41,202.84)	0.816
총부채	14,096.81(18,515.84)	4,996.93(12,861.10)	7.132***
순자산	18,849.92(36,996.00)	30,974.66(36,119.79)	-4.627***

*p<.05, **p<.01, ***p<.001

므로 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관련성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순자산은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서 유의하게 많게 나타나, 사업자금 관련 가계부채를 가진 가계의 취약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6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측면으로 논의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형(<표 29>)은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가계 취약가능성에의 영향요인을 판단하였다. 해당 지표를 충족한 가계는 취약성=0,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는 취약성=1의 값을 부여하였다.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은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지출 측면에서 가계의 취약가능성이 13.8% 증가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취약할 가능성이 45.3% 높다. 또 사업체 특성의 경우, 자영업자가 고용주보다 취약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36.2% 높고 연간매출액이 증가할 때 취약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27% 낮아졌다. 중사산업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계 재무 특성의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취약가능성이 낮아졌다.

두 번째 모형(<표 30>)은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가계 취약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단하였다. 해당 지표를 충족한 가계는 취약성=0,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는 취약성=1의 값을 부여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자산부채 측면에서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이 30.7%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에 비해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이 45.9% 높다.

<표 29> 소득지출 측면(가계수지지표) 취약성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괄호 안은 준거집단)	로그오즈계수(표준오차)		오즈비(odds ratio)
성별 (여성)			
남성	.047	.161	1.048
연령	-.053	.038	.948
연령제곱	4.42E-04	3.34E-04	1.000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이하	-.073	.164	.929
대졸 이상	.121	.192	1.129
가구원 수	.129*	.054	1.138
거주지역(비수도권)			
수도권	.373**	.125	1.453
고용원 유무(고용주)			
자영자	.309*	.156	1.362
log연간매출액	-.303**	.102	.739
종사산업(농림어업)			
제조건설업	-.012	.220	.988
도소매업	-.118	.205	.888
숙박음식점업	-.155	.260	.857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300	.222	.741
개인서비스업	-.030	.206	.971
순자산	-5.11E-06**	1.90E-06	0.999
상수항		1.721(1.124)	
카이제곱		55.814***	
-2log 우도		1729.441***	

*p<.05, **p<.01, ***p<.001

¹⁾ 가계수지지표를 미충족하면 취약성=1을 부여함.

<표 30> 자산부채 측면(장기부채부담지표) 취약성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괄호 안은 준거집단)	로그오즈계수(표준오차)		오즈비(odds ratio)
성별 (여성)			
남성	.275	(.227)	1.316
연령	-.008	(.009)	.992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이하	.390	(.253)	1.476
대졸 이상	.836**	(.285)	2.307
가구원 수	.086	(.075)	1.089
거주지역(비수도권)			
수도권	.377*	(.170)	1.459
고용원 유무(고용주)			
자영자	-.416*	(.202)	.660
log연간매출액	.240	(.147)	1.271
종사산업(농림어업)			
제조건설업	-.150	(.334)	.861
도소매업	-.076	(.324)	.927
숙박음식점업	.433	(.354)	1.542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050	(.343)	.951
개인서비스업	-.083	(.322)	.921
순자산	-6.57E-05***	(6.70E-06)	0.999
log가계소득	.658	(.324)	1.930
상수항		-3.930**(1.313)	
카이제곱		283.039***	
-2log 우도		979.492***	

*p<.05, **p<.01, ***p<.001

¹⁾ 장기부채부담지표를 미충족하면 취약성=1을 부여함.

사업체 특성의 경우 자영자가 고용주에 비해 자산부채 측면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34% 낮았고 매출액, 종사산업 등 다른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 순자산이 많을수록 장기부채부담지표를 미충족하여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세 번째 모형(<표 31>)은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계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단한 것이다. 즉 사업자금 관련 가계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는 취약성=0, 사업자금 관련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취약성=1의 값을 부여하였다.

사업자금 목적 가계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취약성 결정요인을 알아본 결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위 두 모형과 비교하여 사업체 특성이 더욱 주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영자는 고용주에 비해 사업자금을 위한 가계부채를 보유한 취약가계일 가능성이 45% 낮고 연간매출액이 높을수록 사업자금 측면의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이 48.8% 감소한다. 종사산업의 경우 제조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이 농림어업보다 사업자금으로 인한 취약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농림어업보다 제조건설업은 52%, 도소매업은 50%,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은 62%, 개인서비스업은 58%의 각각 낮은 취약가능성을 나타내 사업자금 측면에서는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이 농림어업과 비교하여 가장 취약가능성이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31> 사업자금 측면(사업자금 목적 가계부채 보유 여부) 취약성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괄호 안은 준거집단)	로그오즈계수(표준오차)		오즈비(odds ratio)
성별(여성)			
남성	.394	(.229)	1.483
연령	-.015	(.009)	.985
교육수준(중졸 이하)	.324	(.232)	1.382
고졸 이하	.241	(.267)	1.273
대졸 이상	-.022	(.072)	.978
거주지역(비수도권)			
수도권	.169	(.165)	1.184
고용원 유무(고용주)			
자영자	-.607**	(.194)	.545
log연간매출액	.397*	(.164)	1.488
종사산업(농림어업)			
제조건설업	-.727*	(.290)	.483
도소매업	-.690*	(.282)	.501
숙박음식점업	-.263	(.316)	.769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982**	(.318)	.375
개인서비스업	-.863**	(.287)	.422
순자산	-1.77E-05***	(3.36E-06)	0.999
log가계소득	.131	(.233)	1.140
상수항		-1.806(1.088)	
카이제곱		104.827***	
-2log 우도		1105.788***	

*p<.05, **p<.01, ***p<.001

¹⁾ 사업자금 목적 가계부채를 보유하면 취약성=1을 부여함.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약성을 부여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가계의 취약성 결정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가계수지표 충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소득지출 측면의 취약성의 영향요인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 고용원 유무, 순자산이었고,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자산부채 측면의 취약 여부에는 영향요인은 교육수준, 거주지역, 고용원 유무, 순자산이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두 측면 모두에서 수도권 거주가 취약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유무와 순자산은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에 가져오는 시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소득지출 측면에서는 자영자가 고용주에 비해 취약가능성이 높았고 자산부채 측면에서는 고용주가 자영자에 비해 취약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자영자가 고용주보다 사업이 영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 통제하지 않은 사업의 시장매력도, 성장가능성 등 다양한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창출능력과 자금조달능력의 차이가 가계 취약성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자의 경우 작은 사업규모와 매출액 규모가 결국 충분치 못한 가계소득 규모로 이어지고 소득지출 측면의 가계재무 취약성을 유발하는 것이다. 고용주의 경우는 비교적 큰 사업규모와 매출액 규모가 비교적 많은 가계소득을 창출하여 소득지출 측면의 가계재무 취약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자영자는 담보 및 신용의 부족, 비교적 낮은 사업성과와 부가 가치 등으로 인해 신용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 혹은 대출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의 이유로 부채의 보유액 자체가 적어 자산부채 측면의 가계재무 취약성에 직면할 위험성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는 비교적 담보와 신용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여 부채 보유액이 높을 수 있고 이는 곧 자산부채 측면에서 건전성이 떨어지는 가게 재무구조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장기부채부담지표뿐만 아니라 사업자금 목적의 가게부채 보유 여부에서도 고용주가 더 취약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부채의 절대적 규모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게의 대출로 사업자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자영업자 가게에 이중적 부담을 주어 그 자체로도 가게재무가 건전하다 할 수 없고 사업체가 어려워졌을 때 가게재무 상태가 연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순자산도 소득지출, 자산부채 측면의 취약성 분석에서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는데, 소득지출 측면에서는 순자산이 많을수록 취약 가능성이 증가하고 자산부채 측면에서는 순자산이 많을수록 취약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는 가게소득이 장기적으로 가게의 자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순자산은 부채 규모와 직결된다는 것으로 각각의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원 유무, 매출액, 종사산업 등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계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재무적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인 자영업자의 72%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고, 68%가 연간매출 9,000만 원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사업순수입 평균 3,466만 원이었고,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비중 높아 전문성과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업종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취약하고 영세한 사업체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다수의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57세였고,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0대 이상이 50%를 차지하였다. 매출액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영업자의 연령이 높았고, 농림어업과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매출액이 낮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낮다는 특성을 보였다. 또 매출액이 낮은 집단, 생계형 산업(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를 지속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자영업자의 특성으로 대치할 수 있어 고령, 저학력, 저숙련, 여성 자영업자의 상대적 빈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을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연간매출액과 사업순수입에서 고용주의 경제적 성과와 큰 차이가 나는 영세한 특성을 보였다. 자영자는 농림어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용주는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과 같이 자본이나 기반시설이 필요한 산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이 유급 및 무급 종사자 수가 비교적 적고 농림어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았고, 매출액이 높은 집단은 제조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에서 비교적 많았고 연간매출액은 제조건설업과 도소매업이 여타 산업보다 규모가 컸다. 이는 사업체 특성에 따른 사업체 특성을 살펴본 것으로 몇몇 사업체 특성끼리 높은 연관성을 가져 특정 자영업자 집단을 설명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자영자는 고용주와 비교하여 고령자, 저학력자이고, 배우자가 없고, 가구원 수가 적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이고, 배우자가 없고, 가구원 수가 적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였다. 농림어업은 고령자, 저학력자,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았고,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은 여성의 비율이, 숙박음식점업은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자영자, 매출액 하 집단, 농림어업과 같이 비교적 취약가능성이 높은 사업체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가계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모든 측면에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가계보다 유의하게 영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은 고용주 가계가 유의하게 많았으나, 이전소득은 자영자

가계가 더 많았고, 총지출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서 고용주 가계가 많았다. 총자산, 총부채 규모 역시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고용주 가계가 자영업자 가계보다 많았다.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큰 집단이 소득, 지출액도 많았으나, 이전소득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매출액 하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의 경우, 매출액 하 집단과 중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매출액 상 집단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소득과 지출 규모가 컸고, 농림어업은 가장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는 종사산업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제조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금융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와 같이 사업체 특성에 따라 가계 재무상태가 매우 이질적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곧 재무적 취약가계 구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계수지지표와 장기부채부담지표의 충족 여부,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를 살펴 보았다.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0.7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계는 557가구(41.8%)로 나타났다.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는 연령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고 40대는 미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다가 60대에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70대 이상에서 다시 미충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다. 자영업자, 매출액이 낮은 집단에서 가계수지지표 충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 장기부채부담지표의 준거기준(0.4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산부채상태 측면의 재무취약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계는 249가구(18.9%)로 나타났다.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농림어업인 경우 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체의 부채부담이 가계의 부채부담으로 전가되어 가계의 재무취약성이 예상되는 가계는 232가구(17.4%)로 나타났다.

다.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도 유사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자가, 농림어업과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등이 해당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금흐름, 자산부채상태 측면에서 재무취약성을 갖는 자영업자 가계의 특성이 다르므로 재무건전성 증진을 위한 접근 방식과 가계채무관리 전략 등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수지지표를 미충족하여 취약할 가능성은 가구원수(+), 수도권(+), 자영자(+), 연간매출액(-), 순자산(-)이 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장기부채부담지표를 미충족하여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은 대출(+), 수도권(+), 자영자(-), 순자산(-)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여 가계가 취약할 가능성의 영향요인은 자영자(-), 연간매출액(+), 제조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순자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사업체 특성으로 사용된 고용원 유무의 경우, 소득지출 측면에서는 자영자가 고용주에 비해 취약 가능성이 높았고 자산부채 측면에서는 고용주가 자영자에 비해 취약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하여 자영자가 고용주보다 사업성과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고용주가 자영자보다 담보와 신용을 통한 자금조달능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주로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상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집단 내 재무적 특성의 편차가 크며, 가계재무와 기업재무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에 사업체 특성을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취약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는 가계 재무복지 차원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고령, 저학력, 저숙련, 여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취약, 영세 자영업자의 빈곤화 가능성은 산업 및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자영자, 매출액이 낮은 집단, 농림어업이 비교적 취약가능성이 높은 사업체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업체 특성을 갖는 고령자, 저학력자, 여성 자영업자를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서 주목하고 필요에 따라 업종 전환, 교육, 폐업과 취업·재기 지원,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용원 유무, 매출액, 종사산업 등의 사업체 특성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 바, 자영업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매출액이 낮은 집단, 농림어업은 서로 맞물려있는 특성이고, 이는 자영업자의 재무적 취약성을 결정짓는 데 공통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개별적인 사업체 특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이와 같이 집단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원할 때에는 지역밀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자영업자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행정·복지·금융

기관의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재무적 취약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 지출, 자산, 부채는 물론, 앞서 논의한 개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섬세한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영업자의 이질성에 따라 특성 조합의 경우의 수가 많음을 참작하여 보다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GPFI, 2017).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은 정책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포용이라는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의 내부적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방향성을 성장에 두어야 할 것인지, 복지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자영업자의 이질성은 관련 정책에서 멀티트랙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여러 여건상 취약한 자영업자 집단의 경우 세정지원, 결제수수료 감면, 노후소득보장 등 사업측면과 가계측면에서 복지 차원의 지원이 유효할 것이고, 성장성과 미래가치가 충분한 자영업자 집단의 경우는 일회성의 자금지원보다도 투자유치, 차입금리 혜택 등 금융제약을 완화하거나 금융비용,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성장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용 자원과 인력의 한계가 있고 모든 정책에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경제,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가되 유행에 편승하지 않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투자차원에서 활용되는 자원에 대한 정책당국과 사

회구성원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영업자는 사업의 영세성, 고용주는 부채부담, 특히 사업자금 관련 가계부채 부담을 꼽을 수 있었다. 자영업자가 전반적인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사업성과와 더불어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중요할 것이다. 자영업자가 가계소득으로 직결되는 사업순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관련 제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가적 업무 부담을 축소하여야 한다. 안정적 판로 개척, 회계·세무 업무 등을 자영업자가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유관 기관 등의 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주의 경우는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중 사업자금 운용을 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자산부채 상태 측면에서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계 재무구조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계와 사업을 분리하여 인지하고 기업재무와 가계재무의 혼용은 지양하도록 자영업자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등 외부적 요인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을 ‘자영업자’로 하였으나, 관련 통계자료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혼재·혼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통계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한 한계점이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금리 및 담보 정보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출 DB를 확충·구축해 업종·차주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사업체 특성이 제한적이었던 한계점이 있다. 이는 분석 자료의 한계

이기도 하나, 자영업자라는 집단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반적·재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일례로 교육수준이 임금수준 및 가계소득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임금근로자 가계와는 다르게, 높은 교육수준이 소득 창출력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자산 축적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자영업자 가계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피고용인과 자기고용인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높은 학력수준이 자영업에서의 숙련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체 특성으로 경력기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고학력의 임금근로자가 은퇴 후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의 사례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대상 설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연구대상과 목적별로 사업체 특성을 적절히 통제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재무취약성 여부 결정요인 관련하여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수지표와 부채부담지표에서 서로 상반되는 취약가계 집단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사업체 특성과 가계 재무구조 및 취약성의 주요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는 보유 여부만을 변수로 살펴보았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가영, 이근태(2012), 저부가가치에 물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LG경제연구원 LGERI리포트 17-26.
- 금재호, 이인실(2011), 자영업 매출과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103-140.
- 금재호, 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제23권 81-107.
- 기획재정부(2013), 최근경제동향 3월호(2013.3) 45-53.
- 김광석(2014),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 베이비붐세대 및 다중채무가구의 가계부채 문제 심각,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585호.
-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채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제18권 제3호 87-110.
- 김석기(2016), 자영업자 소득 관련 통계 처리시 유의점, 금융브리프 제25권 제40호 12-13.
- 김도균(2015),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 경제와사회 제108권 73-107.
- 김수영(2018), 국내 자영업의 현황 및 OECD 국가의 자영업과 경제성과 간의 관계 분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55-80.
- 김재철(2017),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17호.
- 박정수(2018),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한국의 사회동향 2018, 190-198.
- 박창귀(2016), 우리나라 자영업의 과도기적 특성 연구, 경제연구 제34권 제1호 163-191.

반정호(2012),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29-56.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 제39권 제9호 49-61.

서용구, 김숙경(2012), 국제 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유통연구 제17권 제5호 39-57.

서정호(2018),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금융브리프 제27권 제4호 12-13.

성지미, 안주엽(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9),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시험조사) 결과 보고서.

안승철, 김년희(2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영남지역발전연구 제28권 73-97.

안정화(2017), 자영업 일자리와 실업률의 상호작용 분석, 노동연구 제 35권 113-142.

양세정, 정지영(2010), 국내 재무설계전문가(FP: 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 재무지표 값 조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3권 제1호 109-137.

양세정,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6권 제3호 143-181.

이승렬(2011), 지난 10년간의 자영업을 되돌아본다, 노동리뷰 1-3.

이준협(2013),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저소득 자영업자 대책 시급,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제528호.

임은의, 임유진(2013), 자영업 집단내 소득불평등 영향요인 연구, 글로벌사회복

- 지연구 제3권 제1호 49-92.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논집 제 26권 제3호 149-179.
- 정영금(2001), 소규모 가족기업의 경영실태진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121-135.
- 주동현, 손종철(2014),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관한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36권 제1호 69-86.
-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 김소연(2016), 소득계층별 재무상태 비교 및 Financial Fitness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9권 제2호 1-38.
- 주현, 김숙경, 홍석일, 김종호, 강신욱(2010), 자영업 비중의 적정성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소상공인진흥원 발간자료(2010.9).
- 중소벤처기업부(2018),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보도자료(2018.12.20.).
- 중소벤처기업부(2018),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 지은정(2012),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2호 55-83.
- 지은정(2013),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1호 147-174.
- 채은석, 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1호 1-12.
- 최문경, 이명진(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제39권 제1호 21-51.
- 최윤지,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9권 제1호 43-54.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99-121.
- 최효미(2005),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 노동리뷰 60-72.
- 통계청(2016), 자영업 현황분석 보도자료(2016.12.22.).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2018.12.10.).
-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2018.12.).
- 통계청(2018),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2018.11.7.).
-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설명자료.
- 홍성희(2005), 소규모 자영업분야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115-126.
- 한국노동연구원(2019), 한국노동패널 1-20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한국은행(2013), 금융안정보고서(2013.10).
- 한국은행(2017),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2017.3.23.).
- 한국은행(2018),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2018.9).
- GPMI(2017), GPMI Subgroup: SME Finance 2018 Work Plan.
- Hanna van Solinge(2014), Who opts for self-employment after retirement? A longitudinal study in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Ageing 11(2014) 261 - 272.
- Lytton, R.H., Garman, E.T., Porter, N.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3.
- Magnus Lofstrom(2013), Does self-employment increase the economic well-being of low-skilled workers?, Small Business Economics

40(2013) 933–952.

Neil Lee, Hiba Sameen, Marc Cowling(2015), Access to finance for innovative SM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Research Policy* 44(2015) 370–380.

OECD(2018), *OECD Employment Outlook*.

OECD(2019), Self-employment rate(indicator) (2019.5.19.).

Sarah Brown, Michael Dietrich, Aurora Ortiz-Nuñez, Karl Taylor(2011),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2011) 425–433.

Tho Pham, Oleksandr Talavera, Mao Zhang(2018), Self-employment, finan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Evidence from China, Russia, and Ukrain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6(2018) 754–769.

Timothy Bates(1995), Self-employment entry across industry group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 143–156.

ABSTRACT

Analysis of Self-employed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and Vulnerabilit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Ku, Yoonhye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ratio of self-employed workers in Korea is 25.5 percent, ranking fifth among OECD countries(OECD, 2018). Self-employed households tend to have large deviations in their financial characteristics, be vulnerable in terms of stability, and be characterized by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between corporate and household finances. In research and policies for the self-employmen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them. Recognizing the complexities of the financial structures of businesses and households and viewing that in multiple ways, is needed. This is because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workers, the financial vulnerability, the intra-group deviation and the mix of corporate and household finances, could bring about financial difficulties for their households.

This study aims to distinguish the self-employed workers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businesses, such as the presence of employees, sales, and the employment industry, to compare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se households and to analyze the financial weakness of self-employed households.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technical analysis, t-verification, chi-square, univariate analysis(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The 20th Korea Labor Panel (2017) was used by merging personal and household data, and 1,334 self-employed households were subject to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2% of self-employed workers were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and 68% were operating businesses with annual sales of 90 million won or less. The net income of the business averaged 34.66 million won per year, and excluding the agriculture, the proportion of industries with relatively low expertise and entry barriers was high, resulting from the high proportion of the private service and wholesale & retail sectors.

Second, the average age of self-employed workers was 57 years old, and in particular those in their 60s or older accounted for 50 percent of the total. The lower the sales figure, the higher the age of the self-employed,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senior citizens in the agriculture, warehouse & real estate industries and wholesale & retail sectors.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and those with low sales figures characterized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ratio of self-employed women in industries with low sales and low entry barriers (lodging & restaurant, private service, wholesale & retail) was high.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ment, the business operated by self-employed

people(self-employment without employees) figured 'small performance' that differed greatly from which of the employer(self-employment with employees) in terms of annual sales and net income of the business. Self-employed people had a high percentage in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warehouse & real estate leasing, while employers had a high percentage in industries that needed capital or infrastructure, such as manufacturing & construction, and lodging & restaurant service. In addition, the low-income group was likely to have less workers and operate their entities in agricultural industries, while those with higher sales were likely to work in field such as manufacturing & construction, wholesale & retail, lodging & restaurant service. In respect to industry, unpaid family workers were relatively large in agriculture and lodging & restaurant service, and annual sales were larger in manufacturing & construction and wholesale & retail than in other industries.

Fourth,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the self-employed people had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low-educated, no spouse, low number of households, and residing in the non-capital area compared to the employer. The low-income group showed characteristics of women, the elderly, the under-educated, the spouse-les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non-capital areas compared to other groups. The agricultural indust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elderly, low-educated and non-capital areas, while lodging & restaurant, private service, wholesale & retail businesses had a higher proportion of women, and lodging & restaurant businesses had a higher proportion of non-capital areas.

Fifth, comparing the financial structure of self-employed households, self-employed people showed a significantly weaker level than employers' in all aspects of income, expenditure, assets and liabilities.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and real estate income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employers, while transfer income was higher for self-employed people. Total expenditure was higher for all type of expenses except medical expenses. Total assets, total liabilities of employers, were also higher than self-employed people in almost categories. The large-sales group had higher income and expenditure, but the transfer income and medical expenses were higher in the lower-sales group. For assets and liabiliti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under the middle-sales, and the large-sales groups were found significantly large assets and liabilities. For manufacturing & construction, income and expenditure were large, and agricultural business were the smallest. Assets and liabilities were not distinct from industry to industry, but the size of the financial liabilities of the manufacturing & construction industries and the lodging & restaurant services were relatively large.

Sixth, looking at whether they met the income-expenditure balance index(Index 1) and long-term debt burden index(Index 2), or whether they held household debt for business fund(Index 3) is performed which is to determine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dex 1 showed no consistent results depending on age, while those in their 40s showed a high percentage of unsatisfied, a higher percentage of satisfied in their 60s, and again a slightly higher percentage of unsatisfied in their 70s and older. Self-employed people and low sales groups were with low ratio

meeting index 1. In index 2, the higher the age, the lower the level of education, non-capital areas, and agricultures had higher the rate of satisfaction for. In index 3, the higher the age,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self-employed, agriculture, and transportation & warehouse services had higher the rate of holding household debt for business fund.

Seventh,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result,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capital-area, the self-employed people, sales and net assets were the factors that affected higher probability to being insufficient household for Index 1. The possibility of being vulnerable in terms of long-term debt burden index, was indicated by college graduates, capital areas, self-employed people and net assets. Factors affecting the possibility of being vulnerable in side of index 3 were self-employed people, sales, manufacturing & construction, wholesale & retail, transportation & warehouse & real estate service, personal service and net asse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utilizing the properties of businesses in the analysis of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s and vulnerabilities, which arise from the view of self-employment hav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businesses and households at the same time. If the three indicators of vulnerability determin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are supplemented, the more detailed and diverse analysis will likely be able to segment the vulnerable groups into characteristics and provide the most appropriate customized support for each group,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financial welfare of the self-employed households.